

사랑의 Romance
여인, in barley field

로
즈 終末 新婦論

목사 한 원 식



Contents

신랑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1
서론	4
총론 및 개요	7
전체적인 그림(축제의 책)	11

제1장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13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	15
종말 성도를 향한 7대 명령	32
하나님의 은혜	36
두 어미의 집?	43
사도신경의 배경과 정리	45
나오미의 권고	54
등장인물과 배경	57
룻의 신앙고백	60
모압에서 결단(나오미의 기쁨)	64
귀환(무화과나무)	68

제2장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73
이삭과 은혜(우연과 마침)?	77
다른 발?	85
보아스의 지시와 룻의 3대 신앙	90

제3장 신부의 단장	117
타작마당과 그 시기	123
시모가 룻에게	134
그 날 밤(이 밤의 약속)	140

제4장 신랑과 신부	163
보아스의 선언(내가 무르리라)	172
결 론	197

☐ 신랑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원래 책을 쓰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냥 계시록을 강의하고 집회하러만 다녔다.

오래 전의 일인데, 그러던 어느 날 선배 한 분이 계시록 원고를 좀 복사해서 달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난감 했었다.

솔직한 말로 아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줄 수도 없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책을 출판하라는 사인(여건)이 허락되었다.

그래서 “종말 계시”를 출판하게 되었고 다시 얼마 전에 본 교단 장로 신문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이름으로 보충 완결판을 쓰고 출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다시 책에서 손을 떼려 했는데 평소에 집회 때 짹짹 소개했던 “룻기”가 있었다.

그러던 것을 “장로 신문사”에서 “사랑의 역사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2년간 연재했던 것을 보완해서 책으로 내게 되었다.

결에 많은 분들이 그 룻기를 책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소원들이 계셔서 할 수 없이 다시 책을 내게 되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먼저 구하는데 너무, 너무한 점이 있다.

지금까지 룻기를 쓰신 분들에게 누가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하나 은퇴한 목사의 글이니 너그럽게 보아 주시면 좋겠다.

룻기를 현대인들이 읽었으면 해서 쓰게 되었다.

룻기를 종말론적인 입장에 보았으면 해서 쓰게 되었다.

혹시라도 몇 한 점이 있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그 뻔한갑다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한다.

예수! 다시 구름타고 오시는 예수를 사랑하는 목사가.

사랑의 여인, 룯 >>>>

룯 = רות

부제 “보리밭의 Romance”

성경의 많은 역사서와 서신서들이 다 그렇지만 이 룯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역사서이다.

쉽게 말하면 사랑의 역사요 또 한편의 역사드라마이다.

더 쉽게 말하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조용히 보아야 할 사랑의 서신이다.

그런데 신기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바보스럽다고 해야 할까?

사람들이 사랑의 서신을 남에게 들고 가서 읽어달라고 한다.

왜 자기에게 온 서신을 남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서신서를 통하여 자기 자신과, 주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남들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서신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대상이 되는 역이 바로 자기 자신인데도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사실 ‘룯기’하면 과거에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일등공신노릇을 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가정의 달에 단골메뉴로 식탁에 자주 오르곤 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룯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핵가족(소가족)시대가 되어서인지 예전같이 고부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예전처럼 고부가 함께 몸을 맞대고 살지 않기에 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도 룯기를 예전처럼 그렇게 보아야 할까?

신랑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지금까지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렇게 보아 왔다는 사실이 실로 부끄러울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작 만나야 할 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일은, 실로 더 큰 비극 중에 비극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알지도 못하는 남들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다.

(눅2: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생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살았던 분이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학수고대했던 것은 자신의 어떤 문제해결이 아니었다.

그가 간절하게 바랐던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보는 자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다.

또 말씀 속에서 자신이 어떤 자신인가를 만나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13년 4월

목사 한 원 식

참소리 : 하나님의 말씀

단소리 : 명언들

쓴소리 : 저자의 보통 소리

잔소리 : 저자의 과한 소리

☐ 서 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하는바에 따라서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명목으로 불리어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서신서, 묵시서 등으로 구분을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역사가 예언을 하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기도 한다.

물론 찬양이 예언을 하기도 하고 복을 말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필요한 몇 가지 주요 요건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시기와 장소를 알아야 한다.

누가 언제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증거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아멘하고 수납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묘사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자만으로 주는 교훈이 있는가하면 영적으로 제시하고자하는 교훈이 더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물론 미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다.

(롬15:4) 무엇이든지 전(前)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 참소리

롬15:4 전에 = προεγράφη ← προεγράφω

전(前)(προς)에 + ε(과거 접두어) + 기록(γράφω)하다 = 과거에 기록되어진 것

전(前)에 기록한 것이 무엇인가?

전(前)에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대로 그때까지(사도들 때까지)의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전(前)에 기록되어진 것은 다 후대를 교훈하기 위한 것이다.

전(前)에 기록된 말씀 속에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다.

(사54:5)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렘3:14)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렘31:3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 참소리

헬라말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에클레시아는 ~에서 불러 낸 자를 의미하는 말이다.(~세상)

ἐκκλησία ← ἐκκλητος ← ἐκκαλεω

ὁ Ἰησοῦς ὁ νυμφίος

사랑의 여인, 롯 >>>>

교회(성도)는 불리냄을 받은 사람으로 여성명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는 성경에 어디에나 신랑이나 남편으로 되어 있다.

(마25:6)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마9:15)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막2:20, 눅5:35)

(엡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고후11: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지금도 계속해서 불리내고 있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세상 끝 날까지 계속해서 그 불리냄에 참여해야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또한 에클레시아라고 말한다.
세상에서 불리냄을 얻었다면 신부다운 신부가 되어야 한다.

▣ 총론 및 개요

1. 룯기의 저자와 저작 년대

룯기는 총4장 85절로 된 역사적 단편 실화이다.

85절 중 절반인 45절이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룯기는 그 어느 책보다도 대화(dialogue)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극적드라마이다.

85절 중 25절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는 어느 성경보다 하나님의 비중이 많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단 두 번만을 제외하고는 등장인물들의 대화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본 주제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많이 말하는 룯기를 보면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신랑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란다.

▣ 룯 : 𐤓𐤕(루트) 전체적 개요

룯 : Ruth(인) : 루트(여성.명사)는 ‘우정, 친구’를 의미하며, 한글 개역 성경에서 룯으로 표기했다.

룯은 이방 땅 모압 여인으로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와 재혼하여 다윗과 예수님의 여자 조상이 된다.

기근 때문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두 아들 말론, 기론과 함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였다.

모압에서 두 아들은 모압 처녀와 결혼하였는데, 그 이름은 각기 룯과 오르바이다.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병으로 이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

뒤이은 가정적, 경제적 위기에서 룯은 상심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원했으며, 그토록 감동적인 아름다운 말로 그녀의 선택을 말했을 때 그것은 인간의 애정의 절정이었다(룯 1:16 이하).

사랑의 여인, 룻 >>>>

룻과 나오미는 보리 수확시기에 베들레헴에 돌아온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온 모압 여인 룻은 죽은 남편의 친족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하게 되었다.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보기 드문 헌신을 칭찬하고, 밭에서 일꾼들을 따르며 이삭을 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 현명한 조언을 해준다.

보아스는 그의 조상의 기업 중 엘리멜렉의 몫을 사서 룻과 결혼하여 과부 신세를 면하게 하고 그 가문의 가계를 잇게 한다.

이 극적인 결합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조부가 되는 오벧(룻 4:17)이다.

모압 여인 룻은 유대인의 신앙 세계에 이방인 개종자를 받아들인 선례가 되었다.

룻은 신약성경에서 단 한번, 마태복음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여자 조상으로 나온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이다.

본 필자는 룻기를 역사서와 함께 룻기에 깊게 감추어진 종말의 교훈을 얻고자 어렵게, 어렵게 룻기를 펼쳤다.

이 룻기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1) 저자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출애굽 이 후 사사시대이나, 룻기의 기록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탈무드에서 사무엘이 사무엘 상하와 사사기와 룻기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2) 저작 년대

저작 년대도 정확한 것이 없다.

다만 등장인물로 보아서 다윗 왕이 등장하는데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소개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다윗시대로 본다.(E.J. Young)

3) 등장인물

등장인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름들로 되어 있다.

등장인물 중 활동 인물은 불과 8명인데 그들의 활동과 이름의 뜻이 롯기 전체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부모가 지어 준 이름이라 할 수 없는 이름들이다.

그 이름들이 그들의 생활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아주 특이한 이름이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들은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참 후대에 롯기를 기술하면서 이름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뜻을 여기 등장하는 이들의 이름을 통하여 전개하기 위한 이름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남자들 : 말론 : 병골(病骨) 기론 : 약골(弱骨)

여자들 : 오르바 : 고집 센, 끈은 목, 긴 머리카락 등등

롯 : 이웃, 친구,

보아스 : 능력자, 기업 무를 자 : Redeemer(롯4:14, 행20:28, 갈3:13)

보아스는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천한 롯을 위하여 상식이하의 성의로 드라마를 역여가고 있음도 독자를 놀라게 할 뿐이다.

나오미 : 롯기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 롯기의 주인공인가 구분이 안된다. 롯보다는 나오미에 치중해서 롯기가 끝을 맺는다. 아들도 롯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낳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보전대 롯기는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이다.

사랑의 여인, 롯 >>>>

결론적으로 롯기는 문자적인 것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자와 역사를 초월해서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가 더 풍부함을 볼 수 있는 대목들로 풍성하다.

롯기가 다윗의 가계로 연결되고 있는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긴 저서라는 증거 이다.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인류구원을 위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개되는 구속사의 대 드라마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구속의 완성인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를 다 다룬 대 역사 서사시라 할 수 있다.

물론 종말의 성도 곧 신부의 삶을 잘 보여 준 사랑의 서사시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내용은 ‘보리밭’에서 시작하여 보리밭에서 극적인 역사가 완성되는 대 서사시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이 롯기의 배경이 보리밭이다.

그러면서도 모든 성경이 종말을 말할 때 보리 추수 때를 말한다.

그 역사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대 사랑의 역사드라마이다.

이 내용들을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갈 것이다.

2. 롯기의 전체적인 장별 그림

1장은 길 → 길

2장은 집 → 밭 → 집

3장은 타작마당 → 기업 무를 자

4장은 성과 집과 안식

3. 롯기의 전체적인 사람 그림(예표적)

롯기 = 모압 여인(이방 여인) → 베들레헬 여인

보아스 = 재림 예수(신랑(新郎))의 모형

롯 = 종말 성도(신부(新婦))의 모형

오르바 = 종말 배신자의 모형

보아스(신랑(新郎)) + 룻(신부(新婦)) = 새 하늘과 새 땅에서

4. 축제의 책 중의 책

유대인들은 이방으로 구원받은 자들과는 다른 점이 많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처럼 제목 설교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 설교도 이방처럼 할 이유가 없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방인과 많이 다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절기를 따라서 본다.
유월절에, 무교절에, 초실절에 아가서를 낭독 한다.
맥추절에, 칠칠절에, 오순절에 룻기를 낭독한다.
장막절에, 수장절에, 초막절에 전도서를 낭독한다.
부림절에, 에스더서를 낭독한다.

저들의 삶 자체가 지극히 성경적이지요 역사임을 볼 수 있다.

■ 단소리

섹스피어

“만약에 성경을 사람이 썼다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다”

빅톨 위고

“성경 읊기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불후의 문학이다”

괴테

“룻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작은 목가적인 서사시이다”

저자

“성경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생명의 샘이다.
그 중에 룻기는 그 생명 샘으로의 여정의 즐거움이다.”

룻기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제 1 장



Romance in barley field

제1장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

[룻1:1]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룻기 해석의 유의점 중 !!??

도시에서 살면서 그것도 전혀 농사도 하지 않는데 매년 추수감사 예배는 왜 드리는가?

도시에서 살면서 그것도 농사도 하지 않는데 매년 맥추감사 예배는 왜 드리는가?

얼마나 그것이 성경적일까?

그러면서도 왜 성경을 때로 이중적 해석이나, 영적인 해석을 하면 무리가 되는가?

룻기는 실지로 있었던 역사요 또 한편의 사랑의 드라마요 예언적인 서사시라 할 수 있다.

그 드라마를 통하여 과부들만 본다는 것이 더 어색하지 않는가?

그 드라마를 좀 더 사실대로 드라마틱하게 볼 수는 없을까?

더 나아가서 룻기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볼 수 있다면 더 못지지 않겠나?

1. 모압

모압의 역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올라간다.

사랑의 여인, 롯 >>>>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시켜 주었더니 엉뚱한 역사를 만든다.

그의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에 만취하게 만든 후 잘못된 관계를 가진다.
잘못된 관계는 항상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

잘못된 결과는 세상에 참으로 많은 비극을 가져 온다.

첫째 딸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모압이라 했다.

이것이 모압의 조상이 되고 기원이 되었다.

둘째 딸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암몬이라 했다.

이것이 암몬의 조상이 되고 기원이 되었다.

(왕상11:33)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버지의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2. 시대적 배경

1) 사사(士師)들이 다스릴 때

그 때는 사사들 즉 지도자들이 타락 한 때 : 삿21:24-25 각각(各各), 자기 소견(所見)의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했던 때였다.

(삿21:24)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 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 사사 : שֹׁפֵט : Λαοδικεία ἐκκλησίας

= Judging the people, Righteous people

: 백성의 통치, 치리, 심판

사사가 백성의 영육 간에 지도자인데 타락을 했었다.

사사가 타락하게 되면 백성들은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 쓴소리 : 말라기 시대

말라기 시대의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랍비들? 회당 장들?

종말 시대의 사사는 또 어떤 사람일까?

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들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이다.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차지도 더웁지도 않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오디게아라는 말의 뜻이 백성들이 다스린다는 즉 민주주의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누가 그렇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로 만들었을까?

종말의 교회를 누가 그렇게 미지근하게 만들까?

사사가 병들면 아울러 교회가 병들게 된다.

룻기를 시작하면서 사사시대를 소개함을 바로 보아야한다.

오늘의 교회의 사사는 누구일까?

오늘의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2) 흉년(凶年) = 말씀(계8:12절 별1/3 떨어짐)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사사가 타락하면 흉년이 든다.

베들레헴(떡집)에 흉년이 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때 교회들의 형편을 말했다.

(암8:11)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13)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아모스는 마지막 종말에 있을 현상을 말씀의 기근으로 표현했다.

그렇다면 현대 교회에 말씀의 기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교회에서 증거 되는 말씀이 흉년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말씀의 흉년은 말라기 시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회당(會堂)이 많았었다.

랍비(先生)도 많았었다.

교재(教材)도 많았었다.

성전(聖殿)도 화려했었다.

대제사장(大祭司長)들도 많았었다.

그런데도 약속의 메시아를 영접한 곳은 한곳도 없었다.

그 때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자칭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자들이 증거
한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들이었을까?

어떻게 증거 했기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기록된 대로 오신 메시

야를 영접하는 것은 고사하고 알아보지도 못했던 말인가?

예수님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 때도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와 같았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오늘의 많은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말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현실과 너무나도 멀게 가르치거나 인식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종말론 곧 계시록 집회를 다니면서 자주 물어보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가?”이다.

그러면 100% 오실 것을 믿는다고 아멘으로 화답을 한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러분들 생전에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가?”라고 물으면 대답이 없다.

더 기가 막히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생전에는 절대로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사실이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왜 오시려느냐고 하면서 짜증을 낸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

막 사업이 내리막길로 파산지경에 이르렀거나,

막 병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다.

“예수나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건강할 때 다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그 현장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답게 뜨거웠던 때는 재림의 신앙이 있었을 때였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사사시대를 보면서 오늘의 시대를 보았으면 좋겠다.

구약시대 당시와 당시 이전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거의 다 순교적인 삶을 살았었다.

현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

사사시대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열 처녀 비유를 말하면서도 곤하게 자고 있는 것 같은 교회들이 아

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내가 출입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원하는 교회인가?

내가 출입하는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인가?

내가 출입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인가?

성전의 주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를 상실한 헐어버려야 했던 성전이였다.

요즘 강단에서 증거 되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또 청중도 함께 원하는 말씀을 준비해야하는 목회자의 아픔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설교자도 원하고, 청중도 원하는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3) 유다 = 정통(正統)(1;7) יהודה(유다)= 던지다, 찬양하다

BC 722년에 앗수르에 의하여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 이후 이스라엘이란 용어는 사라지고 그 이스라엘 대신 유다라는 용어로 통용이 되고 있음을 보는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남 유대가 멸망한다.

그 이후는 이스라엘도 유다로, 유다도 유다로 그 호칭이 완전히 고착되었음을 보는가?

초대 교회 이 후 2,000 년이 넘도록 온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 털어서 유다라고 호칭함도 보는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은 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인데도 그 이스라엘이 유다로 불리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가?

■ 쓴소리 :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옛날을 추억할 때 이스라엘인이라 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했다.

그러면서도 구원을 얻어야 할 자기 백성을 호칭할 때는 철저하게 유

대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롬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이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는
헬라인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하여
겐그리아에서 서원하고 로마로 갔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인들임을 자처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종교를
묻게 되면 한결같이 “유대교”라고 말한다.

왜 이스라엘이라면 종교가 유대교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다.

(롬9: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인가?

이삭으로부터 난자는 유다가 아니라 야곱 곧 이스라엘이다.

유다라는 말은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와야하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음
과 동시에 유다는 지명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종교를 가리키는 말이 되고
있음이 의미가 크다.

현재는 유대민족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고토에 귀환하여 그 국가의
명칭을 이스라엘이라 했다.

4) 아내 = 교회(敎會)

여기 아내는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를 말한다.

나오미는 사사들이 타락을 했었을 그 때에 모압으로 남편인 엘리멜
렉과 함께 내려 갔었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여인이다.

나오미를 교회의 상징으로 보려는 것은 좀 더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사랑의 여인, 롯 >>>>

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그 대답이 있다.

5) 아들 = 성도(聖徒)

이는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아들들을 교회 혹은 교인으로 보았다.

실로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

나오미가 아니더라도 등장인물들을 교회로 봄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아야 할 장본인은 교회(성도)이기 때문이다.

6) 모압 = 세상(世上), מואב(모압)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딸과의 잘못된 관계로 태어난 민족으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 저들이 떠돌다가 정착한 곳의 이름이 되었다.(창19:30-39)

7) 우거(寓居)하였는데 = 짝함. 빠졌는데

성도(聖徒)의 타락(墮落)상. 인본주의(人本主義). 합리주의(合理主義). 자유주의(自由主義)

8) 베들레헬 = מְבִית לֶחֶם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는 대체적으로 사사들이 사사로이 다스리던 때였다고 롯기서의 기록자는 말하고 있다.

교회의 사사(지도자: 목사: 장로: 교사)들이 병들게 되면 그 교회와 성도는 함께 병들게 된다.

교회가 병들면 타락한 교회는 세상과 자연스럽게 타협하게 된다.

교회가 병들면 축복의 개념이 영적인 것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그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

세상인지 교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절인지 교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병들게 되면 영적으로 교회가 흥년이 들게 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교회 비슷한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왜 이단을 잘못되었다고 단죄하면서도, 교회가 이단으로 빠지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가?

교회가 잘못된 단체들에게 빠지는 결정적 이유는 그 교회가 왜 잘못된 대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 잘못된 곳으로 가는 길을 막는 비결을, 이제라도 종말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조직신학을 보면 교회론에서 내세론으로 바로 넘어간다.

교회론과 내세론 사이에 종말론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 모압

(신23:3)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
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엡2: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고후11: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마20:1-16)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 하였거늘,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롬11:1-24절)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으즉”

■ 잔소리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 간 이유들?
엘리멜렉이 모압에도 유대인들이 거주했을 것을 기대했다는 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 간 것은 유대 땅에 있을 때에도 사사들이
다스리던 유대에 애착이 없었다는 설.

사사들이 타락한 시대라서 모압으로 내려감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룻1: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타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1. 등장인물과 그 배경

1) 엘리멜렉 = 하나님은 왕이다. = אֱלִימֶלֶךְ

2) 나오미 = 기쁨, 희락(喜樂) = נָאוֹמִי

3) 말론 = 연약함(카일) 병든(게센) 결핵(헨리) 병(라이트)

= מַלְכוֹן : 롯의 남편

4) 기론 = 낭비, 허송세월, 소멸, 한탄(카일) 파멸(라이트)

= עֲלִיָּה : 오르바의 남편

5) 에브랏 = 베들렘헴의 옛 이름, 곡물의 땅 = אֶפְרַיִם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여기의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사후(事後)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예언적(豫言的)인 이름들이라 할 수 있다.

■ 단소리

버나드

“훌륭한 가문, 높은 수입, 좋은 이름과 명예 등이
죄나 외적 재난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 보다 더 나은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데네 金言

“세상? 그곳은 지나가기에는 좋은 곳이지만
머물러 있기에는 위험한 곳이다”

거기 = 거기는 모압으로 유해야 할 곳이 아니다.
거기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곳이다.
거기는 말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 잔소리

요즘 성도가 중동의 모압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요즘은, 모압은, 모압으로 끝나야 하는 것일까?
룻기를 보지 않기에 모압도 기억에서 지웠는지도 모를 일이다.
모압은 어디에나 있고 내 안에도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랑의 여인, 롯 >>>>

웰빙시대?

이 땅의 영주권?

오늘의 교회를 보면 누가 주든지도 모르게 받으라는 축복의 소리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복을 외치는 자들은 과연 그 복을 받고 사는지 묻고 싶다.

복은 고사하고 교회의 뒷걸음질은 막아야 할 것이다.

[룻1:3]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한 번 선택의 중요성 :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셨다.(자유의지(自由意志))

한국 해병대의 자부심 :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는 이들이 해병대만도 못한 것 같다.

신앙의 고백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면서 생활은 아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이 아니라 요식이 되어 버렸다.

아브라함과 롯

(창13: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 하면

나는 좌 하리라

아담과 하와 : 선과 악

아벨과 가인 : 생과 사

좁은 길(문)과 넓은 길(문) 마7:13-14

다윗과 사울

베드로와 가룟 유다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마13:24-27)

십자가상의 두 강도

모두 다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다.

(마16: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다면 기근은 만났겠으나
저들의 생명은 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모압에 가서 기근은 면했는지는 모르나 생명은 건지지를 못했다.

모압에 가서 더 큰 흉년을 맞았던 것이다.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내려갔었는데 피한 것은 없었다.

모압으로 내려가 흉년은 피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피하지
를 못했다.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 잔소리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말
로다 표현할 수 없이 더 중요하다.

성도가 레헴(떡=말씀)을 떠나면 결론적으로 죽게 되어 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레헴(떡)과 함께 살아야 하고 레헴(떡)을 떠나
지 않아야 한다.

레헴(떡)은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지 모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아스도 베들레헴(떡 집)에 가야 만날 수가 있다.

[룻1:4]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지 십년 즈음에

■ 잔소리

말론과 기론 중에 누가 형일까?

이름이 먼저 거명되기 때문에 대부분 먼저를 형이라고 칭한다.

그럼 롯기 4장에서는 이 이름의 순서를 바꾸어서 소개하고 있다.

(룻4:9)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하지만 1장 4절에서 오르바의 이름이 먼저이니, 오르바의 남편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뿐이다.

성경에서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소개된다.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형제라고만 했지 누가 어떤 서열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에 소개되는 순서로 그들의 선후를 말할 뿐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1. 모압 현지 소식

(고후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에서가 이방 여인을 얻음으로 부모의

근심끼리가 되었다(창27:-28:)

말론과 기론이 이방 땅에서 이방여인을 얻었음은 아예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소를 사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기에, 잔치에 청함을 거절한 내용이 있다.(눅14:15-24)

이 비유에서 잔치의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은 다 저들의 형편이 꾀나

좋은 분들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사람은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한 순간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신 일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불의 사자 엘리야가 아니 가려할 때 엘리사에게 영감을 감절로 주어서 그 길로 엘리사를 파송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드려서 고쳐서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쓰시는 분이시다.

1) 모압

세상을 의미한다.

2) 오르바

뜻 = 외고집의 딸, 머리카락이 많은 여자, 등을 돌림 (카일)
암사슴(할리), 말의 갈기(계센)

3) 룿

뜻 = 노래하는 조상(단테) 소망, 아름다움(계센)

이웃, 친구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소유자이다.

어떻게 이렇게도 아름다운 이름의 소유자가 모압(세상)에 있었는지 의아할 뿐이다.

그래서 그 이름도 한 참 후대에 룿기를 기록하면서 주어진 이름인지도 모를 일이다.

4) 거기

거기 = 모압(세상)

5) 거한지 10년

10 이상의 수는 없다.

10을 셈 했으면 다시 1로 돌아와서 다시 11로 셈을 한다.

10은 세상의 만수라고 본다.

■ 단소리

시리아역에는 “그들이 이방인 아내를 취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 인하여 이삭에게 큰 금심이 되었었다.

물론 그 결과도 엄청나게 나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되돌아간 후에 결혼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향에서,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사람을 보내 아내가 될 여자들을 데려올 수도 있었다.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보내어 자부를 데려 온 것과 같이 엘리멜렉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자부 리브가를 얻기 위하여 엄청난 투자를 하였다.

모압 지방에 살게 되면 그의 아들들이 모압 사람들과 친족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엘리멜렉은 어리석게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것 같다.

사람이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잘 무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필경은’ 어떠할지(잠 14:12) 그를 키운 부모는 알 수가 없다.

오르바는 나중에 시모 나오미와 이별할 때에 자기의 신(神)에게로 돌

아갔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1:15절).

즉 아직껏 그 여자는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룻1:5]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버지가 죽었으면 남은 식구들은 뒤돌아서야 했다.

하나님의 사인(sign)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큰 사인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남은 식구들이었다.

모압에서 믿음의 사람이 죽었다면 생각할 일이 있어야 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말론과 기론이 시간차도 없이 한 순간에 같이 죽었을까?

성경은 하나의 사인(sign)의 책이라 할 수 있다.

성경에 이적, 기사, 기적이라는 말로 다 사인으로 번역해도 되는 말이 쓰였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의중을 볼 수 있게 된다.

여인들만 남고 사내들은 다 죽고 말았다.

■ 단소리

영국 俗談

“아내는 남자가 갖는 최고의 재산이자 최악의 재산이다”

성자(聖者) : 성도(聖徒)(*ἅγιος ἄγιον*)가 세상(모압)으로 내려가면 다 죽는다.

예루살렘 : 어디에서나 등지면 다 내려감이 되고

향하면 다 올라감이 된다.

마20:17, 18, 막10:32-33,

눅18:31, 요2:13, 54, 11:15,

☐ 종말 성도를 향한 7대 명령

1. 사사들이 타락한다(세상을 사랑한다)

말세의 사사는 누구일까?

마귀는 일반 성도보다는 교회의 사역자를 집중적으로 노린다.

교회의 사역자가 넘어지면 교회가 다 넘어짐과 같기 때문이다.

2. 흉년이 든다(말씀의 기근 : 암8:11-13)

세상 지식, 철학, 토착적 미신.

(사9:15)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겔34:1-10)

-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 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 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 3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 하는 도다.
- 4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 5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 6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멧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 7 그러므로 목자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 8 주 여호와와 말씀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 9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 10 주 여호와와 말씀을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계12:4)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 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계12: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교회가 말씀을 떠나면 이단들이 성행하는 원인이 된다.

교회가 너무 교재(敎材), 교재에 의존하는 것도 같은 형상을 불러 오게 된다.(요즘 로마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수많은 교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 교재(敎材)들이 말씀을 대신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3. 여자가 모압으로 내려간다.

(룻이 소돔으로, 믿음을 보겠느냐?)

(눅18: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자 = 교회(벧전3:3)

(벧전3:3)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4. 엘리멜렉의 죽음(다윗 밋세바와 우리아의 사건)

엘리멜렉 = 하나님은 왕이다. = מֶלֶךְ אֱלֹהִים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그의 신앙고백이었을지도 모른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장담을 하다가,

기도가 없다가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현실을 “신앙고백이” 수난을 당하는 시대라고
들 말한다.

신앙고백은 하는데 그대로 살지는 않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들을 보면 고백이라기보다는 외움이라 할 수 있다.

마치 빨리 외우기 경쟁을 하는 것 같을 때가 많다.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기도인지 외움인
지를 모르겠다.

외우는 일도 귀하지만 그 외움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5. 두 여자의 길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한다.

하나의 교회는 참된 예배 곧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가 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살아 있는 형식만의 교회가 있다.

룻기에 이를 대표하는 두 개의 교회가 있음을 본다.

(1) 음녀교회 = 세상으로

(2) 참 교회 = 떡집으로

6. 두 아들이 다 죽음

1) 말론 = 병골(病骨)

2) 기론 = 약골(弱骨)

이 두 이름은 이름이 주어질 때부터 죽기로 작정된 이름임을 볼 수 있다.

또 두 이름이 주는 뉘앙스는 그들의 부모가 그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보다 더 예언적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는 특별히 교훈할 것이 있어서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예시한 일이 있었다.

■ 쓴소리

약속의 말씀이 다 약속이요 또 계시이다.

룻기의 등장인물들의 이름들을 계시적인 이름으로 보자!

룻기의 배경과 사건도 역사와 함께 계시의 교훈으로 보자!

7.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레헴)을 주심 (광야의 양식, 환난의 양식, 감추인 만나 계2:17)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양식(레헴)을 줄 사환을 찾고 계신다.
마6:11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24:45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은혜

[룻1:6]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1) 권고 : 페카트(חַטָּא) = 마지막 권고

(창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
리라! 하신지라.

- (1) 내가 너와 함께 있어
- (2)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 (3)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 (4)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지 말라!

어차피 질 씨름이라면 빨리 포기할수록 유익이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집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길에서 방황하다가 괜한 고생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돌아옴이 상책이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현명함을 배우라!

2) 양식: לֶחֶם (레헴) = 'Apros(알토스)= 감추인 만나, 말세의 비밀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모압(세상)에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떡 집)에 주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베들레헴(בֵּית לֶחֶם)에 양식(לֶחֶם) = 떡
모압이 아닌 베들레헴에 레헴(양식)을 주셨다.
베들레헴에 계속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베들레헴에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레헴(떡 : 양식)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인데 얼마나 아쉬운가?

■ 참소리

만나 : $\text{מָנָה} = \text{מָנָה} = \mu\alpha\upsilon\nu\alpha$ = 이것이 무엇이냐?

3) 들었음으로 = 롬10:9-10

믿음은 들음에서 남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들어라 : $\text{שָׁמַע} \rightarrow \text{שָׁמַע} \rightarrow \Sigma\acute{\iota}\mu\omega\nu$
(좌마) (시므온) (시몬)
신32장 - 신33장

4) 두 여자 = 두 교회

계시록에 보면 참 교회
음녀교회

5) 돌아 오려하여 = 회개

(출16:35)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십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신29:5) 주께서 사십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
지 아니하였으며

‘돌아오려 하여’라는 표현에서 생각할 것이 참으로 많다.

회개를 하려면 결단을 가지고 해야 하지 돌아 오려 하여 즉 회개하
려 하여 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되고 교훈되는 그림들〉

	창세기 12장	창세기 26장	롯기 1장
원인	흉년	흉년	흉년
누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이삭과 그의 아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결과	아내 빼앗김	아내 빼앗기지 않음	남자들이 죽음

■ 잔소리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 올 마음이 생겼다.

베들레헴으로 돌아 갈 마음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베들레헴에 양식(레헴)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까?

베들레헴이 영원한 안식의 처소였기 때문일까?

베들레헴은 어떤 경우에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모압 땅에 아주 슬픈 추억을 남겨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게 하셨다.

**[룻1:7]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1. 등장인물과 배경

1) 있던 곳 = 옛 사람, 옛 습관, 죄(罪)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서도 과거사를 정리 못하는 분들이 있다.
어떤 분은 정리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그 일을 임종자리까지 끌고 가는 분들이 있다.

2) 떠나고 = 본토(本土)(옛 근본(根本)), 친척(親戚)(연한 끈)

아버지 집(의지의 대상)을 떠나 내가 네게...
믿음의 지름길은 버릴 것을 잘 버릴 때이다.

3) 길 = 요14:6절

(1) 모압으로 내려가는 넓은 길

(마7: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눅13: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로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

암몬 사람의 신은 몰록(왕상11:7)
(그모스와 몰록을 동일시하기도 한다.)

(2) 모압과 떡집 사이의 망설임의 길

요단 저쪽과 이쪽

사람들이 부요해지면 교회를 더 잘 다닐까?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교회를 더 잘 다닐까?

형편이 넉넉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힘드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잘 감을 배우자!

(3) 떡집으로 올라가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요14:4)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4) 죽은 자 = 옛 남편

나오미가 모압에서 행복했었다면 돌아오려고 했을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박해가 없었다면 애굽을 떠나려 했을까?

하나님께서서는 때로 어려움(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다.(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이 상책이다.

현재 고토인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온 유대인들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다.(겔29:14-17)

세상에서 박해가 가장 심했던 나라들로부터 돌아 온 것을 보기 때문이다.

마치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때에도 바로의 박해가 없었다면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은 그렇게 많이 돌아오지 않았다.

통계에 의하면 4, 5만 명 정도가 돌아 왔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은혜의 지름길일 수도 있다.

지금은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민족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현재 약 7백만 명 이상이 돌아 왔다는 것이다.

그것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돌아오는 메시아닉주들이 많음은 종말의 시대에 참으로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음은 로마서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5) 돌아오려고

룻기 전체에 “돌아오다”라는 표현이 9번이고

“돌아왔다”라는 표현은 3번이나 된다.

룻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 올!”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

돌아 올 때는 “돌아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돌아 올 때는 인정사정없이 돌아서야 한다.

[룻1:8] 나옴이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참소리

선대 = 은혜(ἔλεος)

룻기에 은혜(ἔλεος)가 세 번 등장한다.

선대 룻1:8 여호와께서

은혜 룻2:20 보아스가

인애 롯3:10 롯이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은혜를 좋아하면서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는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가?

은혜(ἔλεος)를 우리 말 성경이 번역을 할 때에 참으로 다양하게 번역을 하기 때문이다.

은혜(ἔλεος)는 은혜, 아름다움, 강함, 힘, 자비, 긍휼, 자애, 친절, 등등 너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은혜를 번역하는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은혜의 참 의미를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잘 모른다.

은혜는 위와같이 여러 모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말한다.

은혜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심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속히 돌아 와야 하는 것이다.

속히 돌아오지 않으면 질질 끌려 다니든지 아니면 코피가 나든지 무릎이 깨어지든지 할 것 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은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굵은 쇠사슬(a chain)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사슬에 매이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손의 힘이 센가? 나의 힘이 센가?

일단 하나님의 쇠사슬에 매였기에 그 쇠사슬의 범위에서만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전능자의 사슬에 매였기에 결과적으로는 사슬의 범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고로 끝내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귀한 것은 한번 매였기에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이다.

(엡1:4)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슬에 매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슬은 끊을 수가 없다.
사슬을 끊을 수가 없음이 은혜이다.

두 어미의 집?

[룻1:9]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 각각 어미의 집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란 말이 있다.

2. 남편의 집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이란 말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나오미가 이 말을 언제 알게 되었을까?
나오미가 이 말을 미리 알았더라면 남편의 집(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행복은 남편의 집에만 있다.
은혜도 남편의 집에만 있다.
믿음의 생활은 참 남편(신랑)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어미의 집과 남편의 집을 구분하고 있음을 유의하라.

어미의 집은 모압(세상)
남편의 집은 베들레헴(떡 집 : 구원의 집)

4. 송별

가롯 유다와 예수

(마26:49)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요13:30)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세상과 이별하면 낮이고,

예수와 이별하면 밤이다.

바울과 빌립의 딸들

(행20:38)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송별을 잘 해야 한다.

세상과 송별을 하자!

어미의 집에서 떠나자!

남편(신랑)의 집으로 가자!

탕자가 아버 집을 향해서 돌아 왔던 것을 기억하자!

[룻1:10]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마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26:33)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5)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 하니라.

아래 사도신경은 2006년 5월에 대구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에서 특별 대담을 한 것으로, 노회를 통해 총회에 건의했던 것이다.

참고 될까 해서 소개를 한다.

사도신경의 배경과 정리

질문 1.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장로로 봉사하고 있다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또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목회이기에 좀 바쁘게 가야한다고 생각을 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다 감당할 수는 없고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었다.

성경에 구원사적인 수많은 예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남은 한 가지 예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었다.

그 남은 하나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대로 알려면 계시록을 중심으로 예언서들을 다루어야 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중점으로 다룰수록 신앙의 고백이 더욱 확고해졌음을 느끼게 되었다.

신앙고백의 핵심은 곧 사도신경이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도신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니 거의 20여년

의 세월이다.

그러나 학자가 아니기에 많은 애로를 겪은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겪고 있다.

그러나 보람된 것은 성도들이 바르게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다.

6년 전(2000년)에 총회에 상정했으나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유는 각 교단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3년 후 동료들의 권유에 의하여 다시 상정했고 정식의 의제로 채택이 되어 공청회까지 가지게 되었다.

〈사도신경의 유래〉

전설(傳說)	문헌(文獻)	전문(全文)	연도(年度)
12사도가 작성하여 로마로 보냄	Ireneus. Terturian	A.D4C말 Rufinus와 Ambrosious의 책에 처음 사용되었다	Gnostic에 대하여 A.D381년 Constantinople회의 때 신앙고백서로 결정

질문 2

1)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1) 신앙의 바른 체계의 필요성

◇ 사도신경이라는 제목만으로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도였던 제자들의 고백들을 체계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다.

고백들은 요약해서 신조화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는데서 시작하기에 고백서는 매우 귀중한 의미를 지닌다.

◇ 사도신경은 세례 주는 일과 초 신자를 양육하는데 필요했다.

◇ 사도신경은 이단들과의 논쟁에 필요했다.

당시 삼위 하나님에 관한 시비가 많았었다.

특히 예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논란도 많았다.

-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 ◇당시의 사도 신경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완전한 고백이라 할 수 있다.

2) 언제 만들어졌는지?

(1) 작성시기

사도신경은 AD120-150년경에 서방교회에서 시작하였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여 그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방교회는 사도신경보다 신앙의 규범(Κανων της πίστεως)으로 사용하였다.

AD7세기경에 오늘의 형태를 가진 신경으로 만들어졌다.

질문 3. 신학적 의미

1)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신앙고백을 하려는데 있다.

(1) 전승의 기록

-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확정되기 이전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은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 오다가 세월이 가면서 와전되어 가게 되었다.

이에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모아서 연구하되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실한 내용을 찾아가는 것이다.

(2) 성경의 대략

-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성경의 총론 격이다.

(3) 구조와 정의

- ◇첫 번 주제 다섯 :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성도

- ◇ 두 번 주제 열다섯 : 성부에 관하여(1)
천지를 창조하심
- 성령에 관하여(1)
동정녀에게 잉태케 하심
- 성자에 관하여(8개)
출생, 생애, 고난, 죽음, 장사됨, 부활, 승천, 재림
- 교회에 관하여(1)
거룩한 공교회
- 성도에 관하여(4)
사죄, 교제, 부활, 영생,

질문 4. 중요한 표현들

긍정 : 전체가 성경의 66권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다.

짧은 시간 내에 기독교교리의 진수를 터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 성경66권을 다 공부하자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 ◇ 특히 기독교교리를 빨리 알고자 하는 교인에게는 그 지름길이라 할 것이다.
- ◇ 66권을 종합하여 요약한 사도신경을 바로 알 때 성경 이해가 쉬워질 것이다.
- ◇ 이단만 아니라 불신자를 대할 때에도 기독교를 확실하게 정리해 줄 수 있게 된다.

부정 : 사도신경은 남의 언어의 번역이며 또 대부분 구어체(舊語體)라고 할 수 있다.

시제와 주어 특히 관사의 사용이 분명하지 않아 혼동을 줄 수 있다.

그 외에도 원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용법을 우리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신세대와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이해하기 곤란한 것을 외운다고 신앙이 고백 될 수가 없다.
신앙고백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 하고 또 생활하는 것이다.(염불, 주문?)
사도신경은 외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함이 그
목적이다.
고백이 바로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된 것이다.

질문 5. 문법적 틀린 부분

- 1) 그 외아들 → 그의 외아들
하나님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 2) 잉태하사 → 수태되시고
능동과 수동을 구분해야 한다.
마리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 3) 마리아에게서 →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 4) 십자가에 죽으시고 → 죽임을 당하시고(능동태 →수동태)
스스로 죽으셨는가?
- 5) 장사한지 → 장사되신지(능동태 → 수동태)
to die가 아니고 to be killed
- 6) 3일 만에 → 3일에
3일만이라면 72시간을 채워야한다.
- 7) 저리로써 → 거기에서
저리(부사) 로서(부사)
- 8) 거룩한 공회 → 공교회
성경에서 공회는 예수께서 심판을 받으신 곳
신경에 공회는 공교회 = 보편적인 교회
- 9) 교통 → 교제가 더 가깝다.
왕래를 말할 때 사용된다.(사전)
- 10) 다시 사는 것 → 다시 살아나는 것

사랑의 여인, 롯 >>>>

재림 때를 말하고 있다.

질문 6. 발표 후 교계의 반응

홍보의 부족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제는 각 교단이 다투어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교단에서도 2년 전에 총회차원에서 공청회를 가졌었다.

각 교단들이 다 나름대로는 이미 정리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한국교회가 이 중요한 문제로 하나가 되지 못한 점은 매우 부끄럽다

안타가운 일은 각 교단이 절실한 필요를 느끼면서도 서로가 눈치싸움을 하는 것 같다.

질문 7. 새로 정리한 내용

전능하사 천지(天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는 성령으로 수태(受胎)되사 동정녀(童貞女)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葬事) 된지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右便)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審判)하러 오시리라
성령(聖靈)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聖徒)가 서로 교제(交際)하는 것과
죄(罪)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나(復活)는 것과
영원(永遠)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질문 8. 성도들의 반응?

개역개정판이 출시되었다.

새로운 찬송가도 나왔다.

그렇다면 표지에 사도신경이 기재된 것을 보는데 참으로 한심하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매우 흡족해 한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백을 바로해서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신앙의 고백을 바로 한다는 금지가 생겼기 때문에 다 좋아한다.

다 수정된 내용으로 예배에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수정이라 하니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

수정이라기보다는 부족하지만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일은 내가 학자나 전문가가 아니라도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미련이 많다.

질문 9. 수정된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지?

성경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사도신경의 수정은 더 시급한 실정이다.

초대교회 때 못지않게 이단들이 난무한 이때에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다.

신경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예언인 재림의 때가 되었기에 더 더욱 바른 고백을 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모르면 몰라도 알면서도 회피한다면 회피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다행한 것은 많이 늦었지만 모든 교단들이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각 교단들의 움직임을 볼 때 불원간 새 사도신경이 보급될 것으로

사랑의 여인, 롯 >>>>

확신한다.

조속한 시일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온갖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음이 극심한데~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를 반석위에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바로 고백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1. 헬라어 사도신경

Πιστεύω εἰς Θεόν Πατέρα πατακράτορα, ποιητὴν οὐρανοῦ καὶ γῆς,
καὶ εἰς Ἰησοῦν Χριστόν υἱόν αὐτοῦ τὸν μόνογενῆ. τὸν κύριος ἡμῶν,
τὸν συλληφθέντα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γεννηθέντα, Μαρίας τῆς
παρθενου, παθόντα ἐπὶ Πόντιου Πιλάτου, σταυρωθέντα, θανόντα, καὶ
ταφέντα, κατελθόντα εἰς τὰ κατώτατα, τῇ τρίτῃ ἡμέρᾳ ἀνάσταντα
ἀπο τῶν νεκρῶν, ἀνελθόντα εἰς τοὺς οὐρανούς. καθεζομένον ἐν
δεξιᾷ Θεοῦ Πατρὸς παντοδυναμοῦ, ἐκεῖθεν ἐρχομένον καρῖναι ζῶντας
καὶ νεκρούς, Πιστεύω εἰς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Ἅγιον καθολικὴν
ἐκκλησίαν, ἁγίων κοινωνίαν, ἀφεσιν ἁμαρτιῶν, σάρκος ἀνάστασιν,
ζῶην αἰώνιον.

Ἀμήν.

2. 영어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begotten)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Ghos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Hades, spirit world]; The third day he rose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GHOS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flesh];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3. 한문(漢文) 중국어(中國語) 사도신경(使徒信經)

我信上帝 全能的父 創造天地的主(아신상제 전능적부 창조천지적주)

我信我主耶穌基督 上帝獨生的子(아신아주야소기독 상제독생적자)

因聖靈感孕 因童貞女馬利亞所生(인성령감잉 인동정여마이마소생)

在本去被拉多手下受難 被釘於十字架(재본거피납수하수난 피정어십자가)

受死埋葬 降在陰間(수사매장 강재음문)

第三天從死人中復活升天(昇우리성경)(제삼천종사인중부활승천)

坐在全能父上帝右邊(좌재전능부상제우변)

將來必從邦裏降臨 審判活人死人(장래필종방리강림 심판활인사인)

我信聖靈 我信聖而公之教會(아신성령 아신성이공지교회)

我信聖徒相通(아신성도상통)

我信罪得赦免(아신죄득사면)

我信身體復活(아신신체부활)

我信永生阿們(아신영생아문)

고백이 분명한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처인 집을 짓는다.

나오미의 권고

[룻1:11]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오히려 있느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따른다.

창38: 유다와 다말

유다의 장자 = 엘(여호와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 = 죽음)

유다가 다말을 범함(염소 새끼, 도장, 끈, 지팡이를 줌)

그러나 고백이 분명하면 가는 길에는 흔들림이 적어진다.

(신25:5-6)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
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
이요

6)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
니라

■ 단소리

두 랍비의 대화

랍비A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아담을 먼저 만들었는가?”

랍비B “만약에 욕심 많은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라면

여자의 희망을 다 들어주기 힘들었기 때문”

그 욕심을 다 들어주다 보면 하나님은 아무 것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이다.

**[룻1:12]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 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대든지
오늘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나오미가 많이 늙어있었다.

이미 당시 형편으로도 재가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러 있었다.

아내로써 가문의 혈통을 이어야 하겠지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나이임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두 자부는 그 이상을 바라고 시모와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룻1:13]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1) 남편 : 참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뿐,
우리 선배들은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었다.
요4:1-26절

(요4:16)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17)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 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2) 치셨음으로 : 맞을 짓을 했었다.

(약4:4)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계17:2)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살후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딤후4: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1) 그녀의 기질 = 십자가와 동화하지 못함

(2) 그녀의 관심 = 현세적인 육체만족

(3) 그녀의 소망 = 세상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치신 것이라기보다는 나오미가 맞을 짓을 했었다.

매 맞을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매 맞을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다.

등장인물과 배경

[룻1: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좃았더라.

1. 등장인물과 배경

1) 오르바 = 입 맞추고(룻의 처, 노아의 때 사람, 가룻 유다)
(눅22:48)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2) 룻 = 붙좃았더라.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갈 때처럼)
희생의 길 = 십자가의 길
cling to = stick to =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다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왕하2:1-11) 1) 길갈 : 출발점, 엘리야를 따르기 위한
결단의 장소(2:1)
2) 벳엘 :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제단의 길(2:2)
3) 여리고 : 영적 전쟁 터(2:4)
4) 요단강 : 죽음의 장소

(왕하2:9)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사랑의 여인, 롯 >>>>

(요6:67)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롯은 무엇을 보고 나오미를 따르는가?

(합3: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9)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 단소리

생각의 차이

쿠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내지 않고 모든 풀이 시들고 우양(牛羊)이 거기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한가지로 계시니 내 음성이 그를 향할지라 이는 내가 그를 의뢰하는 한 그를 기뻐할 수밖에 없음이라.”

어느 저명한 미국인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을 때 그 공화국 대통령이
이 그에게 물었다.

“왜 남아메리카는 그렇게 가난한데 비해서 북아메리카는 그렇게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남아메리카에는 금(金)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거주했고 북아메리카에는 하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대답.

오르바: “네 명의 거인(巨人)의 어머니”와 동일한 여인으로 알려지고 있다.(골리앗) [Christian world 93, 6, page30.]

**[룻1:15]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 그 백성 = 세상

그 백성 = 모압 백성
옛 사람

2) 그 신 = 그모스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 : 모압 산당(왕상11:7)

(왕상11:7)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물룩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요6:67) 예수께서 열 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마8: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눅14:26)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롯의 신앙고백

[롯1:16]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 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 롯의 결단

동서 오르바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롯의 마음의 눈에는 요단 건너의 나라가 희미하나마 보여졌다.

■ 잔소리

좀 된 시절의 고부간 이야기 이다.

고부간이 얼마나 사이가 좋지 못했던지 하루도 갈등이 없는 날이 없
었다.

이 갈등을 가운데서 보면서 더 갈등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들이었다.

아들이 하루는 아내에게 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의 집 며느리와 시모를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집의 며느리가 하루에 한 개씩 고구마를 구워서 시모에게 드렸더니 석 달 만에 그 시모가 돌아 가셨다는 이야기였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 후 며느리는 고구마를 굽기 시작을 하였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고구마를 구워서 시모에게 드렸다.

고구마를 굽기 시작했던지 석 달이 다 되어 갈 때였다.

시모가 하루는 며느리의 옷소매를 잡고 통곡을 하였다.

“애야 이렇게 착한 며느리 아이를 두고 내가 죽을 짓을 했었구나.”하면서 눈물로 바다를 이루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시모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구운 고구마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고구마를 하루도 빠짐없이 구어 대니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이 때 며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룯기로 돌아가자!

룯 : 인류역사상 최고 며느리의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다.

정말 며느리의 고백인가?

또 시모에게 하는 고백인가?

이 고백으로 해결됨이 무엇인가??

이 고백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지 잘 보는가???

룯이 왜 어머니를 떠나며

룯이 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룯이 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룯이 왜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 하겠나이대!

룯이 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룯이 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랑의 여인, 룯 >>>>

다시 말하지만 이는 신앙의 고백이지 며느리의 고백이 아니다.
사도신경을 외우지 말고 고백으로 하자!
주기도문도 외우지 말고 고백으로 하자!
확실한 룯의 신앙관(信仰觀)을 가지자!
룰의 헌신(獻身)

[룯1: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 16-17절 룯의 7대 신앙

- 1) 효,
 - 2) 끝까지,
 - 3) 예비처,
 - 4) 선민관,
 - 5) 신관,
 - 6) 세례와 십자가,
 - 7) 심판관
- 룰은 종말 성도의 표본이다.

[룯1:18] 나오미가 룯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 참소리

(요21:15-17)

15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
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
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원어 : 헬라어

- (요21:15-17) Ὅτε οὖν ἡρίστησαν λέγει τῷ Σίμωνι Πέτρῳ
ὁ Ἰησοῦς,
Σίμων Ἰωάννου, ἀγαπᾷς με πλέον τούτων.
λέγει αὐτῷ, Ναί, κύριε, σὺ οἶδας ὅτι φιλῶ σε.
λέγει αὐτῷ,
Βόσκει τὰ ἀρνία μου. λέγει αὐτῷ πάλιν δεύτερον,
16 Σίμων Ἰωάννου, ἀγαπᾷς με. λέγει αὐτῷ, Ναί, κύριε,
σὺ οἶδας ὅτι φιλῶ σε.
λέγει αὐτῷ, Ποίμαινε τὰ πρόβατά μου. λέγει αὐτῷ τὸ
τρίτον,
17 Σίμων Ἰωάννου, φιλεῖς με.
ἐλυπήθη ὁ Πέτρος ὅτι εἶπεν αὐτῷ τὸ τρίτον, Φιλεῖς με.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Κύριε, πάντα σὺ οἶδας, σὺ γινώσκεις
ὅτι φιλῶ σε. λέγει αὐτῷ . Ἰησοῦς.
Βόσκει τὰ πρόβατά μου.
15, Βόσκει τὰ ἀρνία μου.

사랑의 여인, 롯 >>>>

16, Ποίμαινε τὰ πρόβατά μου.

17, Βόσκει τὰ πρόβατά μου.

모압에서 결단(나오미의 기쁨)

[룻1:19]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 1) 두 사람(왕하2:1-11 엘리야와 엘리사 = 두 증인)
(계11: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 4)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 2) 베들레헴까지 : 벤세메스까지의 두 암소(삼상6:1-14)
- 3) 온 성읍 = 교회
- 4) 베들레헴 성읍은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었다.
- 5)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 = נָאוֹמִי = 기쁨, 희락(喜樂)

[룻1:20]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1) 나옴 = 기쁨

2) 마라 = 괴로움

전능자가 정말 나옴을 괴롭혔는가?

나옴이 괴로움을 당할 것을 하였는가?

읍도 고통 중에서 “주께서 나를 대적하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신다.”고 불평하였다(읍 13:26).

■ 단소리

토마스 아퀴나스

1. 때때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좋다.

그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2.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주면 참으로 좋아 한다.

그러나 반대로 아래서 위로 쓰다듬어 주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아마도 활기거나 사납게 물려고 대들 것이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래서 위로 쓰다듬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다고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앉았다면 바름 쓰다듬을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돌아오라고 거꾸로 쓰다듬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 참소리

1) 전능자(全能)

나옴은 여호와를 전능자라고 불렀다.

그렇다. 여호와만이 전능자이시다.

성경에 전능자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곳에 쓰였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씨를 말씀하실 때 전능자라는 표현으로 찾아

사랑의 여인, 롯 >>>>

오셨다.

아브라함에게(창17장)

야곱에게(창28장 - 35장)

■ 쓴소리

하나님께서 전능자임에는 틀림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전능자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피나 힘이 드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종을 파송했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파송되었을 때 하나같이 다 죽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께서는 계속해서 파송을 했었다.

특별하게 나실인을 만들기도 했다(삼손)

불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기도 했고

그 보다 영감을 갑절로 해서 엘리사를 보내기도 했다.

끝내 독자 아들을 보내신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신다.

전능자의 전능은 홍수나 유황불이나,

최후의 심판의 불이기 때문에 전능자께서도 어려운 것 같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룻1:21]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하니라.

1) 비어 = 거지(거지가 되었기에 돌아 왔다 : 탕자)

사람들은 병원에서 많은 회개를 한다.

사람들은 무너진 공장 터에서 회개를 많이 한다.

2) 내가 풍족하게 나갔거늘(탕자 : 눅15:13)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하게 떠났었다.

왜 이들이 풍족한데도 베들레헴을 떠났을까?

베들레헴에 더 있다가 그 있는 풍족함이 손해 볼까해서 떠난 것이다.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아보아야 하는 의무

■ 쓴소리

복을 받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일이 잘 되어서 바빠져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 단소리

버나드

“떠나게 되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질 것을 두려워해서였다”

툼셀

“내가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다.”

(욥1:21)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지라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귀환(무화과나무)

[룻1:22]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22절은 롯기의 전체적인 배경이다.

룻기의 전체적인 배경이라는 말은 전체가 추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 와야 할 사람은 추수가 시작되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이고 그 아들은 추수꾼이기 때문이다.

칠칠절(七七節)

팔레스틴에서는 5 - 6 월에

추수기간 : 약 일개월정도

메뚜기의 생육기간 : 5 개월

마13:39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 ὁ διάβολος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 ὁ δὲ θερισμὸς συντέλεια αἰώνος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 οἱ δὲ θεριστὰὶ ἄγγελοι εἰσιν

여름 = θερος → θερίζω → θερισμοι(추수 때)

추수 시작(秋收 始作)할 때

때를 맞추어 돌아 왔다.

성경의 추수 때는 오순절을 기점으로 할 때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맥을 거두거나 여름 타작 마당의 사건들이다.

모맥 거두는 시기

(수3:15)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름 타작마당

(마3: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호13:3) 이따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눅3:17)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삼상6:13) 벤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단2:35)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숴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하였었나이다.

무화과나무의 비유

여름 = $\theta\epsilon\rho\alpha\varsigma \rightarrow \theta\epsilon\rho\iota\zeta\omega \rightarrow \theta\epsilon\rho\iota\sigma\mu\omicron\iota$ (추수 때)

(마24:32)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눅21:29)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막13:28)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29)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막11:13)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 מֵרְקָח : (테엔) מֵרְקָח : σῦκον

“네가 무엇을 보느냐?” 렘24:1-10

(렘24:1) 두 광주리의 무화과를 보이심

2)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악한 무화과

3)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무화과이온데”

7) 내가 여호와를 아는 마음(심장)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 단소리

하나님의 떡집인 베들레헬을 떠났던 헷수가 의미하는 것?

다시 말하지만 10 이라는 수는 세상의 만수(滿數)를 의미한다.

이는 유대(나오미)가 세상으로 내려간 헷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끝
내 떡집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깨닫는다.

그 때 누구를 대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나오미와 함께 한 자는 이방여인인 롯이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예수님의 선한 이웃의 비유의 말씀처럼 세상 끝 날에 유대와 이방인이 함께 추수 때에 돌아오고 있는 그림이다.

이제 유대가 돌아왔다.

단지 유대가 국호를 이스라엘로 했는데 저들이 그 의미를 알고 있을까?

또 그 국가가 상징으로 한 것이 다윗의 별인데 이 별을 보면서 다윗의 계보로 오신 예수를 모르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되고 또 예수가 저들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저절로,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감을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셨다.

그 때 거기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이 누군가?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인과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히브리인은 타민족이 나그네였던 아브람을 부를 때 불렀던 호칭이다.

히브리가 선민들의 국호가 아니다.

유대도 그렇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국이 된 후 두 나라가 다 이방의 포로가 된다.

그 때 그 포로 된 자들을 세상이 호칭할 때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유다라고 불렀던 점도 깊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단지 유대인과 세상 열방과의 구별로 사용되었던 표현이었다.

공관복음서에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6 회만 등장한다.

그런데 4복음서인 요한복음서에는 70 번이나 등장한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반(反) 켈족주의(anti-semitism)의 근거로서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사도 요한의 의도를 잘 보아야 한다.

사랑의 여인, 롯 >>>>

당시의 모든 일들이 다 유대인 사회에서 발생한 일들인데도 때때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소경의 부모가 유대인이다.

그런데도 그가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참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제 2 장



Romance in barley field



제2장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룻2:1]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1) 유력한 자(유력자: גִּבּוֹר(김보르)

강(력)한, 강(력)한 자, 용사) = 부자

김보르(형용사)는 가바르(גָּבַר : 강하다, 능하다, 위대하다)에서 유래했으며, 형용사로 ‘강한, 강력한’, 실명사로 ‘강(력)한 사람, 용사’를 의미한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150회 이상 나온다.

(1) 강한 자

a. 창30:30에서 가장 강한 사자,

(창30:30)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떼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b. 삼상14:52에서 강한(힘 있는) 자,

(삼상14:52)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모았더라.

c. 김보르는 창6:4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사랑의 여인, 롯 >>>>

2) 사9:6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는 메시아가
‘(전)능하실’ mighty 것이라는 소망도 포함되어 있었다.

3) 왕은 그의 왕국의 힘을 상징했다.
그는 전투에서 자기의 군대를 이끌어야 했으며 지휘관으로서 ‘용사’
hero로 생각되어졌다.

다윗은 생애 초기에 ‘용사’ hero로 인정되었다(삼상18:7).

4)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자이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
능자(깁보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습3:17).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부 때문이 아니다.

부자가 부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소유 때문이 아니라 의지 때문이다.

눅14:15-24절 1) 나는 밭을 샀으니(18) } 잔치에 갈 수 없는
2) 나는 소를 샀으니(19) } 이유들
3) 나는 장가들었으니(20) }

사람들이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2) 시리아역은 이 구절을 “율법에 있어서의 유력자”라고 해석하고 있다.
만일 보아스가 재물과 성경에 있어 다 같이 유력한 자라면,
그것은 가장 귀하고 훌륭한 결합이었다.

3) 보아스 = 신속, 민첩, 힘(대하3:27, 왕상7:25)
= 성전 기둥의 이름

(계3: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룻2:2]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뉘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같지어다’ 하매

이삭과 은혜(우연과 마침)?

1. 밭으로 가는 룻

룻이 지금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가?
룻이 밭에 이삭을 주으러 가는데도 시모에게 물어야 한다.
밭 = 양식의 근본
종말의 성도는 아무 밭으로나 가면 아니된다.

2. 뉘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는 것도 은혜인가?
레19:9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룯4:3]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현재 룯4:3절의 말씀대로는 엘리멜렉의 소유는 나오미가 관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이어온 엘리멜렉의 소유의 땅들은 다 놀려지고 있었을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사상)으로 내려 간지가 벌써 10년 넘는 세월이다.

그런데도 그 어디에도 엘리멜렉의 소유를 방치했다는 말이 없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고 있는 그 해에도 그 땅만 방치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방치된 것이 아니라면 룯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싹을 받으러 갔어야 했다.

룯기의 관심은 룯과 보아스의 만남에 있다.

룯기의 드라마를 바로 보지 못하면 시모와 며느리만 보게 된다.

재차 강조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죄인을 볼 수 있어야 말씀을 바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룯기의 관심은 세상 관심사(불신 세계)가 아니다.

그런 것을 따지기 보다는 룯과 보아스의 만남에 관심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의 만남이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룯기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간과(看過) 한다면 룯기는 여전히 군고구마 예기 같은 시모와 며느리의 이야기로 끝나고 만다.

1) 나로 밭에

룯은 배고픔을 알았다(밭 = 사명의 장소 : 영적인 배고픔을 느꼈다)

룯은 밭으로 가야 했다.(신부가 가야 할 밭은 말씀의 집)

2) 이삭

룻이 밭으로 간 것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라 했다.

이삭?

이삭으로 무엇을 만드는가?

이삭 ⇒ 레헴 ⇒ 떡의 재료(말씀?)

3) 내가 뉘게 은혜(恩惠)를 입거든

이삭을 줍는데 은혜라는 말이 어울리는가?

잠시 숨을 멈추고 보아야 할 대목은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면서 “뉘게 은혜를 입거든” 이란 말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삭을 줍는 것을 권리가 아니라 은혜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이상하게 들지 못하는 귀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삭을 줍는 것은 가난한자의 특권이다.

그런데도 여기서 룻이 은혜를 말하고 있음은 이중적 의미로 음미해야 할 대목이다.

성경에서 은혜라고 말할 때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룻은 조국까지 버리고 베들레헴에 이삭을 주우러 온 것이다

■ 참소리

성경에 이삭을 줍는 여인들

이삭은 과부나 고아의 몫이다.

레19:9-10

레23:22

신24:19

(출22: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사랑의 여인, 롯 >>>>

(속7:10)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 1) 과부(寡婦) :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과부 된 자.
- 2) 고아(孤兒) : " " " 고아 된 자.
- 3) 객(客) : " " " 객이 된 자(나그네의 철학)

■ 잔소리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도 은혜인가?
롯을 통해서 은혜를 바로 알자!

[롯2:3]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1. 밭에서?

1) 밭은?

밭은 떡의 재료가 있는 곳이다.

2) 베는 자 = 목자(牧者)

베는 자는 떡의 재료를 장만하는 자이다.
보아스의 명을 받고 있는 사환들이었다.

3) 우연히 = 믿음의 사람에게겐 우연은 없다.

2장 3절의 as turned out 과 2장 4절의 Just then

야곱과 라헬의 만남 = 우연?(창29장)
모세와 바로의 딸 = 우연?(출2:5-10)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 우연?(요한복음 4장)
여러분이 예수 만난 일? 우연?
모든 것이 인간 편에서 우연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만 있을 뿐이다.

(마10: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눅2: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 1) 마침 = 믿음의 사람에겐 하나님의 마침이 있을 뿐이다.
- 2) 문득 = 마2:2, 10 동방의 박사들과 별
- 3) 마침 = 눅1:8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새

↳ Ἐγένετο는 γινωμαι의 직설법 과거 중간태

참고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여인, 롯 >>>>

= 샛6:12절 천사의 인사와 같음

마리아와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 “먼저 보이시니” 막16:9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 : 보아스를 만나다.

[롯2:5]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뉘 소녀냐?’

1. 보아스와 사람들

1) 사환(使喚) (אֲנָשִׁים)

(1) 종

왜 사환이라 했을까?

보아스가 거느린 자는 추수하는 일꾼들이다.

사환 : אֲנָשִׁים(나아르) 아이, 소년, 젊은이, 종

사환 : 나아르(명남)는 나아르(אֲנָשִׁים)에서 유래했으며,

‘아이, 소년, 젊은이, 시중드는 사람, 종자, 종’등을 의미한다.

나아르는 유아나 이유기의 어린 아기(출 2:6, 삼하 12:16, 삼상 1:24),

어린 아이나 작은 아이들, 작은 소년(왕상 2:23-24),

청소년(삼하 14:21, 삼하 18:5),

왕의 종이나 신복들(왕하 19:6),

병사들(왕하 20:15이하),

그리고 가정의 사환이나 하인(삼하 16:1, 왕하 4:19 이하)에 대해 사용되었다.

보아스에게는 곡식 즉 이삭을 베는 일꾼들을 거느린 한 사환이 있었다(6절).

큰 집에서는 하인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그는 하인들의 일을 감독하고 또 식량을 분배해 주어야 한다.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환과 같은 종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슬기롭고도 충성스러워야 하며,
여기 나오는 사환처럼 주님께 모든 일들을 고해야 한다(6절).
성도(소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자라야한다.(잠27:23)

(마24:45)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46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보다.
4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2) 종교적 지도자

사환 = 70인 역

사환 = 'Αγροκομος(아그로코모스 : 70인역)
= 집사, 관리인, 목사.

70인 역으로 본다면 충분히 영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다.

2) 뉘 소녀냐?

70인역 : 뉘 소녀냐? : τινος η νεανις αυτη

탈꿈 역 : 이 소녀의 국적이 어디냐?

시리아 역 : 이 소녀에 대하여 들어 본적이 있느냐?

아랍어 역 : 이 처녀의 형편이 무어냐?

결혼에 한 번 실패한 여인

쉽게 말하면 과부이다.

그런데 보아스는 소녀라고 불러주고 있다.

보아스가 릿을 몰라서일까?

다음 구절이 이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룻2:6]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실은 보아스가 묻기 전에 다 알고 있었다.
보아스는 누구에게나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하였다.

(요1:48)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롬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룻2:7]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광야의 장막 생활에는 쉼이 없다.
안식(安息)을 향하여 가고 있을 뿐이다.
사실 성막(성소, 회막, 장막, 증거막) 안에는 쉴 곳이 없다.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한다.
광야는 쉴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길이다.

**오늘 교회 안에는 나그네 보다는 이 땅에 영주권자들이 많은 것
같다?**

그것을 혹이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할 텐데...

(행28:23)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다른 발?

[룻2:8] 보아스가 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려,
다른 발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1. 보아스의 분부

(1) 내 딸아 = 부자지간의 관계(소녀에서 → 딸로)
보아스가 어떻게 룯을 딸이라 하는가?
여기서 아주 귀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 왔으면 곧 처녀요, 또 더 친근한
딸로 불리어지게 됨을 보게 된다.

전에 사마리아 여인이었던지(요5장),
세금장이 여리고의 삭개오든지(눅19:2-9),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서 주님 앞으로 끌려 왔던지(요8장)
어떤 모양으로라도 예수님께 나아왔다면 다 처녀요 딸이 되는 법이다.
세상에 이 보다 더 친근한 호칭이 또 있을 수 있겠는가?
룯이 아직 모압에 있었다면 그녀는 청상과부이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마지막 날에 신랑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2) 들으라 = 창42:24, 시므온의 결박,

사6:9-10, 마13:9 눅2:25-30, 36 아셀지파

보아스가 롯에게 ‘내 딸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신다.

인류 역사는 ‘들음’에서부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로 뒤범벅이 되었던
시작은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였다.

더 자세하게는 사탄의 말에 귀를 내어 줌으로 된 역사가 되었다.

‘들으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인가?

들으면 성공이요 듣지 않으면 실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최초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씨 뿌
리는 비유였다.

그 비유의 말씀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의 말씀이 바로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이었다.(마13:9)

그것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다.

그 때 4,5 천 명씩 따라 다닐 때였다.

그런데 그 때 귀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그럼에도 아무도 이 말씀을 이상하게 듣는 사람이 없었다.

이는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이다.

(사6: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사도 바울이 그의 고별 설교에서 이 말씀을 또 하는 것을 보고 들었
으면 좋겠다.(행28:26-28)

(행28:26)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27)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3) 이사를 주우러

2장 2절에서 “내가 뉘게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사를 주우러 가는데도 은혜가 필요한 것인가?

이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다.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다.

이사를 양면(兩面)으로 보면 탈날까?

① 순수한 이사

② 레헴(떡)의 자료로써의 이사?

룻기의 배경이 참으로 중요하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다 죽고 다 잃어 버린 것이다.

다시 남은 가족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면 레헴(떡)을 생각해 볼만
도 하지 않을까?

아니라면 왜 이사를 줍는데 은혜를 말해야 할까?

진정한 은혜는 말씀을 받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 대목에서

룻의 이사 줍는 과정을 말씀 듣는 것과 비유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

보아스가 주님의 상징이라면 충분할 것이다.

(4)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 음녀(거기서 나오라 계18:4)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말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사만이 목적이라면 다른 밭으로도 가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룻이 지금 베들레헴 벌판에 있는데 다른 밭이라도 거기가 베들레헴
이다.

그렇다면 다른 밭은 처음부터 나오미(교회)가 지정해 준 밭이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럼 다른 발이란?

다른 발이란 양식 비슷한 것들을 위장해서 넣어 놓은 것들이다.

다른 발은 마지막 때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이단들을 말한다.

교회가 먹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쓴 나물의 발인 잘못된 교회들을 말한다.

(마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계12: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갓음이라 하더라.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았다면 증인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5) 여기서 떠나지 말고 = κολληθητι = 매어 달리다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말도 목적이 이삭이었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더군다나 70인 역 성경에는 떠나지 말라는 말이 “매어 달리다”라는 말이다.

아예 이 발에 생명을 걸라는 뜻으로 들린다.

(6) 함께 = 신실(信實)한 성도(聖徒)의 공동체(共同體) = 지체(肢體)

이삭만이라면 베는 자들과 함께 있을 이유 또한 없는 것이다.

마지막을 사는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를 잘 만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목자 곁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잘 받아먹어야 한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성도(양)가 목자를 멀리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

요즘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아주 이상한 현상이 판을 친다.

예를 들면 양이라는 자들이 목자를 비평하는 소리들이다.

목자가 이러니 양들이 그렇지 하는 소리들이다.

옛말에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있다.

참 말씀의 밭들이 세상 바람에 너무 메말라가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기 때문 보다는 청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아할 뿐이다.

헌데 그 청중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현실이다.

(7) 여인의 이름이 달라진다.

롯이 보아스를 만난 후는 모압이란 딱지가 제거된다.

롯이 보아스를 만난 이 후는 롯 앞에 “모압”이란 수식어가 없어진다.

롯이 참 신랑을 만났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한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신앙을 고백하기까지는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으로 불려진다.

그러다가 그녀가 신앙을 고백한 한 후부터는 그녀 앞에 사마리아가 떨어져 나간다.

그냥 여인으로 호칭되고 있음을 보라!

■ 잔소리 :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모압이나 사마리아를 달고 다니는 자들이 있다.

어서 모압이나 사마리아를 떨어내야 한다.

[롯2:9] 그들의 베는 발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 보아스의 지시와 롯의 3대 신앙

1. 보아스의 7대 지시

- (1)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세상과 짝한 교회, 음녀 교회)
- (2) 여기서 떠나지 말라(요15:5,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죽는다)
- (3)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신령한 교회와 함께)
- (4)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말씀을 들어보고 확인 잘 하고 등록)
- (5) 그들을 따르라(제자는 따르는 자다)
- (6)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보호(保護), 두 증인(證人))
계7:3절 인치기까지(계11:5절)
- (7)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사55:1-3절)

그럼 왜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야하나?

그것을 왜 보아스가 롯에게 명령을 하듯이 하나?

이는 보아스와 롯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이 보아스 곁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이다. 더 나아가서 보아스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는 명령을 한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보아스는 밭의 주인이고, 롯은 그 밭에 이삭을 줍기 위하여 온 여인일 뿐이다.

또 보아스의 소년들이 베는 것을 보라 했다.

이방 여인이 이삭만 주우면 되지, 보기는 왜 보아야 하나?

그뿐만이 아니다.

보아스는 계속해서 그 소년들을 보면서 따르라는 명령을 한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소년들에게도 명령을 내린다.

롯을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다.

(계11:5)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더 크고 복된 일은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 온 물을 마시라는 것이었다.(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이제 롯은 더 이상 이삭을 줍는 여인 이라기보다는 보아스와 함께 밭의 주인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룻2:10]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1) 은혜를 베푸다 = knowledge of me(KJV) = ~을 후대하다

(룻2:10) Then she fell on her face, and bowed herself to the ground, and said unto him, Why have I found grace in thine eyes, that thou shouldest take **knowledge of me**, seeing I [am] a stranger?

2) 엎드려 절하며 = 경배(敬拜)

절?

3) 예수님과 사단

예수님께서 금식 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셨을 때 사단과 다투신 일이 있었다.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을 마귀가 가리키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하고 절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사랑의 여인, 룯 >>>>

그 때 그 절이라는 원문이 절(προσκυνη)라는 말이 쓰였다.

이 말이 절과 함께 예배라는 단어이다.

사단은 예수님께 단순히 절을 요구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예배를 요구했던 것이다.

우리말 번역이 잘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

(눅4:7)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 때 예수님께 사단에 하신 말이 다음과 같다.

(눅4:8)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4) 룯이 엮으려 절을 하고 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도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실 때의 이야기이다.

그 때 원문 성경을 보면 우리말 ‘가야하겠기에’란 말이 원문에 데이(δει)로 영어 성경에서는 must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어쩌다가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 아니라 또 바빠서 질러가신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야만 했던 길임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도 우물에서 전개된 이야기가 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물에 관한 말씀이다.

여인은 일반적인 물을 말했고, 예수님은 생수를 이야기 하신다.

그 때 등장하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다.

예수님에게 예배의 이야기를 여인이 시작한다.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 본다.

1. 롯의 3대 신앙(信仰)

1) 땅에 엎드려 절하며 : 예배(敬拜)

성경에서 ‘절’이라는 말은 대부분 예배라는 말이다.

요즘 이 귀중한 예배가 여러 형태와 이유로 무너지고 있다.

토굴이나 골방에서의 예배가 너무 화려해지고 있음을 본다.

어떤 로마교회 사람의 말.

“우리는 건물 짓다가 망했는데 요즘 교회가 따라오고 있구만,”

롯기의 롯의 절도 인사치레정도가 아니라 경배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 이방인 여인이거늘(영원히 구제 받을 수 없는 죄인 이어늘)

이방인의 때 — {
 — 롬11:25-27
 — 눅21:24
 — 고후3:14
 — 단7:27

3)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롯 : 은혜를 안다)

다시 재론하지만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실로 예배와 함께 쓰여지는 용어가 은혜이다.

또한 예배 때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

[롯2:11]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1. 보아스는 롯을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1) 분명히 들었느니라(계2장 - 3장)

신랑이신 주님은 7교회의 형편을 다 알고(*οἶδα* : 알고 계셨다)

계2:2 네 행위, 수고, 인내

9 네 환난, 궁핍

13 네가 어디 사는 것을

19 네 事業, 사랑, 믿음, 섬김, 인내

3:1 네 행위, 살았다 하는 이름을

8 네 행위,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 이름을 지킨 것

15 네 행위, 차지도, 덤지도 않은 것

계시의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받아야하는 자들의 형편을 다 잘 알고 계셨다.

현재의 형편만이 아니라 장차 될 형편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

(마10:30)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눅12:7)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

2. 보아스는 롯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롯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기 전에 보아스는 롯을 잘 알고 있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롯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음을 알 수 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후 줄 곳 살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롯이 나오미와 어떻게 돌아 온 것까지 세세하게 살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눈동자 같이, 불꽃같은 눈으로, 머리터럭 하나까지,

**[룻2:12]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1) 네 행한 일 = 시모(교회)에게

2) 날개 = 독수리의 날개(출19:4) 큰 날개(계12:14)

3) 온전한 상 = 완전한 보상(報償)

룻은 보아스를 만났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상을 약속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을 말하고 있다.

■ 참소리 : 그 날개

(출19:4)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אֶרְבֵּי**)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신32:11)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퍼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12)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겔16:8)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אֶרְבֵּי**)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 보아스가 알고 있었던 것

- 1) 네 남편이 죽은 후(배꼽 줄이 끊어진 후)
- 2) 네 부모(인본주의 모압 행의 사람)
- 3)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교회생활)
- 4) 고국을 떠나(옛 생활의 청산, 회개)
- 5)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기도의 생활)
- 6) 네 행한 일을(행위의 복)

계14:13,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 7) 온전한 상(히11:6, 큰 믿음의 상)

온전한 상 = 세상이 주는 상과 구분이 됨을 말한다.
주님은 학수고대 상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

- (히11: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賞)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2. 내가 줄 상이 있어, 절의 계속이다.

히11:6 “상(賞) 주시는 이”(ο μισθαποδότης)

(고전15:41)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면류관의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다.

면류관의 종류

- 1) 많은 면류관(계19:12)
- 2) 나의 면류관(욥19:9)
- 3) 네 면류관(계3:11)
- 4) 자기의 면류관(계4:10)
- 5) 생명의 면류관(계2:10)
- 6) 의의 면류관계(딤후4:8)
- 7) 영광의 면류관(벧전5:4)
- 8) 영화의 면류관(잠4:9)
- 9) 금 면류관(계4:4)
- 10) 일곱별의 면류관(계12:3)
- 11) 자랑의 면류관(살전2:19)
- 12) 열 두 별의 면류관(계12:1)
- 13) 시들지 않는 면류관(벧전5:4)
- 14) 아름다운 면류관(사62:3)
- 15) 보석 있는 면류관(삼하12:20)
- 16) 영화로운 면류관(잠16:31)
- 17) 화려한 면류관(겔16:12)
- 18) 열 면류관(계13:1) 적그리스도에게
- 19) 썩을 면류관(고전9:25)

상급 즉 면류관이 아무리 태산같이 준비되었어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그림의 레헴 : 떡?)

엘리멜렉처럼 모압만 바라보지 말고 떡집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룻의 동서 모압 여인 오르바처럼 그 신(神)에게로도 돌아가지도 말고 믿음의 지조를 잘 지켜야 한다.

3. 갚아 주리니 (ἀποδοῦναι) ⋯ ἀποδιδωμι 의 부정사 과거 능동태

- 1) 갚아 준다는 말은 빌려 준 것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성도가 언제 주님께 빌려 드렸는가?

성도의 선행은 곧 주님께 빌려 드림이 된다.

빌려 드렸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필히 갚으시는 것이다.

- (마16: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 (눅10:35)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 라 부비(浮費)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 (딤후4:14)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 (잠19: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 리라
- (마18: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 10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 14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2) 일 한 대로 (ἐκάστῳ ὡς τὸ ἔργον ἐστὶν αὐτοῦ)

… 각 사람이 다 자기의 행한 일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

(계2:23, 사40:10, 62:11-12, 램32:14, 롬2:6)

- (고후9: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 (욥34:11-12)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언제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시62:12)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사40: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렘32:19)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이다

4. Israel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화되어 새로 받은 이름이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라 했지만 거기 사는 자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유대민족, 유대교, 유대주의(ism) 자들이 살고 있다.

로마서1장에서 6장 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
원을 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고 했다.

그 후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말하고 난 후 9장부터 유대라는 말을
빼고 이스라엘을 따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룻기는 종말론으로 그 때 이미 로마서를 보고 있었다.

이방 여인 룻이 유대인인 나옴과 손잡고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
오고 있음을 기술한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부터 고토로 돌아오고 있다.

저들이 저들의 힘이 아닌 이방인의 힘에 의하여 돌아오고 있다.

저들의 힘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다.

저들의 힘으로 UN에 가입을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하여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들을 고토로 돌려
보내고 있음이다.

이는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등 예언서에 수 없이 약속을 하셨다.

[룻2:13] 롯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 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1. 롯이 보아스를 향하여 내 주라고 호칭 한다

1) 은혜 입기를 원 하나이다 = 시41:11

탕자의 고백

(눅15: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 위로하시고

3)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 신랑이

[룻2:14]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 식사할 때 = 이중적 의미?

(1) 떡이나 빵을 먹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식이 빵(떡)이었다.

- (2) 성경에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 한다
말씀 선포(예배 시간)

(룻2:14) And Boaz said unto her, At mealtime come thou hither,
and eat of the bread, and dip thy morsel in **the vinegar**.
And she sat beside the reapers: and he reached her parched
[corn], and she did eat, and was sufficed, and left.

예배 시간을 롯기를 빌려서 표현하다면 영적인 식사 시간이라 할 수 있다.

말씀 곧 레헴 곧 떡(빵)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성례식을 할 때 롯기서로 하면 얼마나 멋지겠나 싶다.

- (3) 초 :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메츠’는 포도주에서 난
‘초’(민 6:3)를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과 함께 식사 할
때 양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근동 지방에서는 갈증을 푸는
음료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중동 지방의 전통적인 음료라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 특히 옛날 농부가 추수를 할 때 막걸리로
배도 채우고 또 그 힘으로 허리를 펴고 일을 할 수가 있었다.

- (4) 볶은 곡식 : 이것은 아직 덜 여문 밀을 모닥불 등에 살짝
볶은 것으로(레2:14), 아직도 근동 지방에서는 빵에
곁들여 사용되거나 빵 대신 주식으로 애용되기도 한다.

■ 참소리

- (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5:12)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 참소리

성경에는 먹는 이야기로 충만하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먹는 이야기로 충만한 책이다.
성도가 너무 세상 양식에 집착함은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 있다.

(렘15:16)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겔3:1-3)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가서
2)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2) 와서 = 갖다 먹어라

(계10:9)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종말 성도라면 말씀을 달라고 사역자들에게 가서 요구하는 능동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성도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먹는 모습을 본다.
사사시대 같은 모습을 말씀 생활에서도 많이 느낄 수가 있다.

3) 초 = 다윗과 무비보셋,
활력을 줌

4) 베는 자 곁에
곡식(이삭 = 레헴)을 베는 자
누구일까?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의 사역자를 생각할 수 있다.
언제나 양은 목자 곁에, 성도는 말씀의 종들 곁에 있어야 산다.

5) 볍은 곡식 = 연단된 곡식, 단단한 식물,
(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5:12)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 쓴소리

사람의 영육간의 건강을 알아보는 법

육신 = 밥상을 주어 보면 알 수 있다.

영적 = 말씀을 주어 보면 알 수 있다.

예배 = 말씀 받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아멘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다.

사랑의 여인, 롯 >>>>

[룻2:15]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 보아스의 배려

1) 보아스의 명령

보이지 않는 배려

[성령의 인(印)치심 엡1:13, 4:30, 하나님의 인 계7:2]

(엡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 치심을 받았으니

(엡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계7: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계7: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2) 책망하지 말라 = 부끄럽게 하지 말라.

[룻2:16] 또 그를 위하여 줍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 보아스의 배려

1) 줌에서 = Hand-full에서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서’라는 표현을 잘 보시라.

이는 이삭을 줌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삭은 밭에 떨어진 곡식을 줌는 것인데 추수꾼들이 아예 고의적으로 흘리고 있음을 본다.

그것도 이미 손 안에 쥐었던 것을 다시 흘리는 것을 본다.

■ 쓴소리

내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흘려 줄 것은?

그것도 단에서 뽑아 마구 흘려 줄 것이 무엇인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성도가 참으로 많다.

믿음의 후배들이 정말 나의 가는 길을 보고 감동을 받는가?

가끔씩이라도 후배들의 박수 소리를 듣는가?

2) 꾸짖지 말라 = 잔소리하지 말라.

꾸짖음 : 사역자도 잔소리는 좋은 것이 아니다.

성도들도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이 잔소리일 수 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좋은 말도 다 못할 것이다.

말을 아껴서 좋은 말을 하자!

■ 단소리

랑계

“열매는 그 나무 바로 밑에 떨어진다.

늙은 새의 노래가 있기에 어린 새가 흥내 내어 짹짹이다.

어린 아이 때 자기의 집은 인생의 예비 학교이다.”

[룻2:17]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 쯤 되는지라

1) 밭에서 = 교회에서?

종말 성도는 밭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종말 성도는 다른 밭에 기웃, 기웃하면 아니 된다.

종말 성도는 타인(이단)의 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종말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임을 알아야 한다.

종말 성도는 죽어도 내 아버지 집에서 죽어야 한다.

(수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2) 저녁까지 = 끝까지, 신랑을 만나기까지

저녁 다음의 시간이 어느 시간인가?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렇다면 밤은 언제인가?

예수가 없는 세상이 밤이다.

예수 없이 사는 삶이 밤의 삶이다.

성만찬 때의 일이다.

요13:30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성만찬은 저녁에 시작된다.

그렇다면 성만찬을 한참 진행 중일 때는 그 때가 밤이다.

그럼에도 요한복음 기자가 왜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그 때를 말하지 않아도 밤인데 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까?

예수와 상관없이 없는 세상의 시간은 밤인 것이다.

3) 떠나 = 계산(計算) 마25:14-30 19절 “회개 할 때”

눅19:1-27 15절 “장사한 것을 알고 저희를 부르니”

언젠가는 떠는(결산) 시간이 온다.

그러나 그 시간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오랜 후의 날이 아니다.

그 시간이 불원간에 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 오고 있는 때이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무너진 다윗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만반의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고 있는 때이다.

지금 옛 성 여리고 근처에 모형 성전을 짓고 제사장 훈련을 시키고 또 준비 중이라고 한다.

어쩌면 그 시간이 너무 임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500 여 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날이 보통날이었다.

2,000 여 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던 날도 보통날이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도 밤에 관한 것이었다.

성경은 깨어 있기를 강조하고 있다.

4) 에바 = 22 kg = 12 되

(전9:10)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찌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롬12: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행28:23)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사랑의 여인, 롯 >>>>

[룻2:18]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1) 보이고 = 간증

참된 성도라면 하루의 삶을 피차간에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주의 날 예배드리러 교회 왔다면 지난 주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산 삶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러면서 새 은혜를 받아 다시 힘 있게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2) 먹고 = 남기고

‘먹고 남기고’란 말이 참으로 멋지지 않은가?

교회 와서 말씀을 먹기는 먹는데 세상에 나가서 남기는 삶을 사는
자는 그렇게 많지가 못하다.

남기기보다는 손해나보지 않으면 다행이다.

성도라는 좋은 이름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손해 본 것을 교
회에 와서 채우려는 것을 많이 본다.

세상에서는 비굴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용감한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도 현실이라 할 수 있겠다.

3) 시모 = 교회

다시 거듭 말하지만 시모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시모 나오미와 자부 롯을 이런 관계에서 보아야 롯기가 바로 보
여 진다.

남긴 것 = Reserve = 장래나 어떤 목적을 위해 비축함

Stock pile = lay up (비상 양식)

어리석은 부자 “말 위에 타고 있는 부자는 마귀에게로 더욱 더 빨리 간다.”

[룻2:19]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1. 시모 나오미와 룻의 대화

1) 오늘 = 저녁

저녁이라는 말은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다.
저녁이란 말은 밤을 앞에 둔 시점임을 알자!

2)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가 왜 그렇게 궁금한가?
단순한 이사를 줍는 사건이라면 어디서가 왜 필요한가?
이방인 여인 룻이 이사를 줍는데 어디 즉 누구의 발인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3) 어디서 일 하였느냐?

이 대목이 매우 궁금한 대목이다.
룻이 일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사를 주우러 갔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왜 룻이 일한 곳을 물어야 했을까?
룻이 밭으로 간 목적이 이삭이라면 밭은 물을 필요가 없다.

사랑의 여인, 룯 >>>>

4) 너를 돌아 본 = take knowledge of

역시 이삭이 목적이었다면 돌아 본 자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
나오미는 룯으로 하여금 일하게 한 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

5) 종 : δουλος(둘로스)

6) 일 하게 한 자 = I worked to is Boaz

룯은 시모에게 일하게 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한다.

일, 수고, 봉사, 충성... 과연 누가 했는가? 주님이 하셨다.

[룯2:20]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 하나이니라.’

1. 나오미가 자부에게

- 1) 생존한 자 = 현재
- 2) 사망한 자 = 과거
- 3) 은혜 베풀기를 쉬지 아니하도다.
- 4) 우리의 근족(近族) = 기업(企業) 무를 자 중에 하나

[룯2:21] 모압 여인 룯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룻이 여기 한번 모압 여인으로 소개가 된다.

룻이 자신을 표현할 때 즉 그를 보아스와 대조하면서 스스로를 나타낸 말이다.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여기 또 라는 말 속에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음을 짐작하게 한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룻의 고백 같은 그러한 고백이 많아야 한다.

성도가 기록으로 완성 된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한다.

■ 단소리

1. 모압 여인이 시모에게

1) 모압 여인 룻 = 이방인을 강조

2) 내 추수를 = 마24:32-35, 막13:28-31, 눅21:29-30, 단2:35

추수하다(θερίζω)는 여름(θερος)에서 유래

3) 추수 = **θερισμος** ← **θερίζω**(테리조) = 추수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교훈은?

여름을 아는 것이었을까?

추수를 아는 것이었을까?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여름과 추수를 다 함께 볼 수 있었다.

번역 성경을 보는 이들은 이 둘을 다 함께 보지를 못한다.

유대 땅은 절기상으로도 여름이 올 때면 추수가 끝난다.

4) 다 마치기까지 =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계15:8)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못난 신부(新婦)

- 1) 놀아나는 신부
- 2) 가산을 탕진하는 신부
- 3) 귀가에 관심이 없는 신부
- 4) 당부에 무시하는 신부
- 5) 참아내지 못하는 신부
- 6) 남편의 오랜 출장을 좋아하는 신부
- 7) 남의 신랑에 관심이 많은 신부(음녀 : 이단)

[룻2:22] 나오미가 자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1. 나오미가 롯에게

1) 내 딸아

나오미가 자부 롯을 딸이라 호칭한다.

좀 전에 보아스가 롯을 호칭할 때 딸이라 했다.

1) 함께 나가고 = 베는 자와

보아스의 소년(사환)들과 함께 할 것을 명령한다.

2) 다른 밭에서 = 2:8 다른 밭

이삭이 목적이면 왜 다른 밭을 금할까?

육신적인 형편만이라면 나오미와 롯은 매우 궁한 중에 있었음이 틀림없다.

당시 농사를 하지 않았기에 저들에게 이삭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삭을 많이 주워야 한해를 살고 또 다음 해 농사철까지
지날 수 있기 때문이다.

3) 다른 사람?

베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
만나지 말아야 할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날 많은 성도들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또 교제까지 나눔을 본다.

잘못된 단체나 이단의 꼬임에 빠져서 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오늘의 교회가 다른 발은 말하면서도 대책은 없는 것을 본다.

4)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성도(신부)는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적그리스도?(단9:27, 7:8, 24-27, 8:8-9, 9:26-27, 12:11)
종말의 교회가 성도를 바로 보호하는 방법은 계시록을 바로
가르쳐야 한다고 믿는다.

(살후2: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8)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5) 오르바는 다른 발으로

오르바는 그 신(神)에게로 갔다고 했다.

[룻2:23]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롯 1 장	롯 2 장	롯 3 장
떠남	1:1-2 풍족하게 떠남(1:21) 베들렘 → 모압	2:1-3 빈손으로 나감 집 → 밭	3:1-6 빈손으로 나감 집 → 타작마당
정착	1:2-6 빈손 모압	2:3-17 이삭 밭	3:6-15 곡식 타작마당
귀향	1:7-22 빈손의 결과 모압 → 베들레헴	2:18-23 풍성한 이삭 밭 → 집	3:15-18 타작마당→집

- 1) 보리, 밭 = ?
- 2) 가까이 있어서 = ?
- 3) 마치기까지 = ?
- 4) 함께 = ?

■ 단소리

열방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왔다.

- (사43: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 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귀환한 백성들에게 약속이 되고 있음이 무엇인가?

물론 나오미를 통하여 주어지는 약속이나 그 약속이 “안식”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재림의 메시아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안식은 메시아의 도래 때에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오미에게도 룯에게도 안식은 어떤 날과 연관을 시키지 않고 누구를 만남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룯기 3장에서 안식을 말하면서 보아스를 등장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안식의 주인을 만나야 참 안식을 하기 때문이다.

신부의 단장

제 3 장



Romance in barley field

제3장 신부의 단장

[룻3:1]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安息)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 잔소리

나오미의 말을 이해하셨는가?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무엇을 구해다가 준다는 것일까?

안식의 문제를 과부 나오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가?

안식만이 아니라 안식할 곳을 구해서 주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교회는 안식(~~map~~ : rest)의 나라로의 관문이다.

어거스틴의 말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나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오직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

이 말을 다른 말로하면 “안식은 교회를 통하여”이다.

지상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교회를 말씀하신 것도 기억을 해야 한다.

(신12:9)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10)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신25:19)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요단강 건너의 나라가 진정한 안식의 나라이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 단소리

1) 안식(安息) = מנוח = rest = 휴(休) = 인(人) + 목(木)(十 + 人)

진정한 휴식(休息)은 예수와 함께 또는 곁에 있을 때

נו = 휴식

(창6:8) וְנֹחַ מָצָא חֵן בְּעֵינֵי יְהוָה:

(창6: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נוח)라는 이름이 곧 안식(rest)이라는 의미이다.

홍수가 창일하는 중에도 노아는 안식(rest)할 수 있었다.

대 홍수 때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쓰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때 안식이라는 말이 노아(נוח: rest)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시23:2) בְּנֵאֻחַת יְדֵי יְהוָה יְרֵבִיצֵנִי עַל־מִי מְנוּחַת יְהוָה:

(시23:2)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 하
 시는도다.(설만한 : מְנוּחַת)

(룯3:1) 룯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3:1) וְהָאִשָּׁה לָא נִשְׁמָתָהּ בְּחַיֵּי הָאֱלֹהִים אֲבִיקָשׁ לָךְ מִן הַמָּוֶת וְלֹא תִּבְרָךְ
:וְכִי לָךְ?

성경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둘이다.

우리말에는 이 두 단어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되고 있다.

안식이라는 말을 교회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안식의 나라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날로 쓰여지는 안식일(安息日: שַׁבָּת)이 있는가하면 누려야하는 안식(rest : מנוח)이라는 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를 막론하고 교회가 안식일 즉 성수주일은 많이 가르쳤으나 어떻게 그 안식을 누려야하는지는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2) 교회가 복을 준다.

■ 잔소리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상식으로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이 누구일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못에 38년을 다 있었다면 안식일이 1900번 이상 지나간 것이 된다.

그는 거기서 조금도 거동할 수가 없었기에 유대 역사상 최고로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안식일은 그렇게 많이 오고 갔는데도 그에게는 조그만 큼의 안식도 없었다.

그에게 언제 안식(rest)이 주어졌는가?

안식(rest)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 만났을 때 그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

안식(מנוח)은 날이 주는 것이 아니다.

안식(**rest**)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다.

안식(**rest**)은 안식(**rest**)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동산은 곧 안식의 나라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안식의 축복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잃어버린 안식을 찾아 주시기 위함이었다.

(요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안식의 주인을 만날 때 진정으로 안식이 주어진다.

안식의 주인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그 분이 믿는 자 속에 들어 와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바르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안식의 주인을 만나셨는가?

그럼 지금 안식의 주인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가?

안식의 주인과 지금 동행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참 안식이다.

그래서 저 천국은 그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는 나라이다.

지금은 그림자적인 것이나 성도는 안식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말하는데 믿는 자 여러분들은 늘 안식의 주인과 함께하는 것이다.

주일은 내 안에 안식을 주신 그분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지키던 안식의 방식과 달라지게 되었다.

구약은 안식의 주인이 오시기 전에 주신 것이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안식 그 자체이시다.

그렇다면 안식(**rest**)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따라서 달라져야 할 것이다.

다른 이상한 단체들은 아직 구약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오신 약속의 예수님을 몰라서 바로 받아 드리지(만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안식은 운운하지만 진정한 안식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에도 안식(**rest**)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고집하는 것이다.

타작마당과 그 시기

[룻3:2] 네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1. 안식을 마련하는 나오미

1) 네가 함께 하던 시녀들 = 유대인과 이방인 동격(롬1:-16)

(롬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롬2: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롬2: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사랑의 여인, 롯 >>>>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롬3:9)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롬3:29)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 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롬10: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2) 오늘밤에 = 이스라엘은 흔히 밤에 타작한다.

나오미는 타작의 때를 알고 있었다.

(암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창18:17)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시25:14)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3) 친족 : 親族 = (렘25:23-25)

친족 : **מִשְׁפָּחָה**(몰레데트) 친족, 출생(지), 자손

몰레데트(명, 여)는 알라드(**לָדָה** : 아기를 ‘낳다’, 열매를 맺다, 생기다)
에서 유래했으며, 그 의미로는 ‘친족, 출생(지), 혈통, 자손’을 의미한다.

타작마당 = 몸소 타작하심

(마3:12) 손에 킶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눅10:2)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
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 단소리 : 타작(打作)마당과 법궤(法櫃)

1) 타작(打作)마당?

종말과 추수는 같은 이야기이다.

(창50:10)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를 위하여
칠 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삼상6:12) 암소가 벤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벤세메스 경계까지 따라 가니라

13) 벤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삼상7:1) 기랴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와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와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 궤가 기랴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년 동안을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삼하6:6)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옷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 여호와 하나님께서 옷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시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8) 여호와께서 옷사를 충돌하시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옷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삼하6:10) “여호와와 그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벰에

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1) 여호와와 그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 후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벰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벰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 새

(삼하7:9)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12)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13)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2) 타작(打作)마당의 위치(位置) = 모리아산(山) 정상(頂上)

종말이 추수라면 알곡은 반드시 타작마당(환난)을 거쳐야 곡간에 들어 갈 수가 있다.

(대상21;18) 여호와와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5) 그 기지 값으로 金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金600세겔 = 약 7Kg

3) 타작(打作)마당 = 성전(聖殿) 터

(대상21:15)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러 할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
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와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대상21:26)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8)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성전건축(聖典建築) : 대상22;1-19절 금(金) : 360톤, 은(銀) : 3600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이다.

창22: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9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
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성전터는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마련해 두신 곳이다.

다윗에게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다.

솔로몬에게 역군도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다.

(계11;1-2)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 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척량(尺量)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 단소리 : 타작(打作)의 시기(始期)

(수3;15) (요단이 모맥(牟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櫃)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櫃)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 (삼상6;12) 암소가 벤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大路)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벤세메스 경계까지 따라 가니라
13) 벤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櫃)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1) 여름 = $\theta\acute{\epsilon}\rho\omicron\varsigma \leftrightarrow \theta\acute{\epsilon}\rho\mu\iota\zeta\omega \leftrightarrow \theta\acute{\epsilon}\rho\mu\iota\sigma\mu\omicron\upsilon$ (참조 : 1:22)

- (단2;35) “여름 타작마당의 겨 같이...”
(마24;32)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눅21;30)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自然)히 아나니

■ 잔소리

여름을 알겠다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는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름을 아는 것일까?
여름이 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은 여름은 안다고 자부하니 배우려고도 아니 한다.
그래서 배우라는 명령이 있어도 귀하게 듣지 않는다.
또 여름을 가르치는 곳도 없다.
물론 여름을 배우려는 분들도 없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간곡하게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오늘의 교회가 잘 못되었다.
배우라고 명령을 하셨으면 열일 다 제쳐두고 배워야 한다.

[룻3:3]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1. 타작마당으로 가는 길

1) 목욕(沐浴)?

나오미가 자부 롯을 어디로 보내고 있는가?

나오미의 행동은 유대 전통을 잇는 씨를 이어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욥9:30)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젖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31)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목욕 = 회개(悔改)(마3:1-2, 말4:5-6)

(계16:15)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22:14)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 음녀의 단장(淫女 丹粧)(계17:1-3)

ㄱ. 많은 물위에 앉았다

ㄴ. 땅의 임금들로 음행

ㄷ. 땅에 거하는 자들로 포도주에 취하게

ㄹ. 붉은 빛 짐승을 탔다.

(2) 말세(末世)의 시온의 딸들(사3:16)

ㄱ. 교만

ㄴ. 늘인 목

- ㄷ.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 ㄹ. 아기죽 거리며 행하며
- ㅁ. 발로는 쟁쟁하는 소리를 낸다.

(3) 신부(新婦)의 단장(丹粧)(벤전3:3-4)

베드로전서의 단장이라는 말이 코스모스(κόσμος) 이다.

요즘 백화점에 가면 코스메오라는 화장품도 있다.

- ㄱ.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 ㄴ.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 ㄷ.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 ㄹ. 썩지 아니할 것으로
- ㅁ.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2) 기름을 바르고 = 성령(聖靈)으로 충만(充滿)

당시의 타작은 지금과 달랐다.

탈곡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컴바인이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쯤의 농사방법으로 보리를 타작해 보신 분은 잘 아실 것이다.

보리를 타작하는 타작마당으로 가는데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보리타작 마당으로 갈 것이면 기름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타작을 다 한 후에 바를 일이다.

이 말씀과 사건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면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다.

종말을 사는 성도라면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

3) 의복(衣服) = 예복(禮服)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데 의복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롯이 평소에 벌거벗고 다녔을까?

(계16:15)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22:11)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 올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 이어늘

13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하니라

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 전신갑주(全身甲冑)

(엡6: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2) 세마포, 예복

(마22:12)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 이어늘,

(3) 옳은 행실

(계16:15)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4) 예수 그리스도

(롬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4)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사21:10)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 잔소리

타작마당과 알곡과의 관계
알곡이 곡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타작마당이다.
알곡이 타작마당을 통과하지 않고는 곡간에 들어 갈 수가 없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명절이 수장절이다.
수장절은 알곡을 곡간에 저장하는 절기이다.
그러면서 농사가 끝남과 동시에 마지막 절기이다.

타작마당 = 환난 통과?

환난 전 휴거를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 올 때 여과과정이 없이 들어 왔었다.
신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때에 복음이 홍수같이 밀물처럼 들어 온
것이다.
그 중에 한 신학이 환난 전 휴거설이었다.
그래서 만들어 진 복음 송에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

사랑의 여인, 롯 >>>>

난 전에 나는 가노라”라는 것이 생겨났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곳곳에 잔재하고 있다.

환난 전에 휴거한다면서 환난 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모순도 함께 저지르고 있다.

환난? 즉 곡식으로는 타작이다.

쉽게 말하면 타작도 아니 된 상태에서 티끌과 덩불과 함께 곡간에 들어가겠다는 말이다.

세대 주의적 환난설이다.

계시록을 곡해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참으로 많은 잘못된 단체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알곡은 반듯이 탈곡의 과정을 거침과 동시에 키질을 통해서 곡간(수장절, 장막절)에 들어가게 된다.

알곡에게 타작은 환난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모가 롯에게

[룻3:4]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일을 내게 고하리라’

1. 롯을 향한 행동지침

1) 눕는 곳을 알았다가 = 낮에 알아두어야 한다(평소에)

2) 그 발치에 = 가장 가까운 곳으로

눅7:38절 예수님의 발에 향수를 부은 여인

눅10:42절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

(전5:1)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너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3) 가까이

가까이 하다 : *προσκυνεω*(프로스퀴네오)

예배(禮拜) : 뜻 = 가까이 하다

προσκυνεω(프로스퀴네오)

= *προσ*(~향하여) + *κυνεω*(가까이) = 예배하다, 입 맞추다.

προσ(프로스) : 향하여

κυνεω(퀴네오) : 가까이 가다

예배를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예배를 잘 드렸느냐, 잘 보았느냐는 말 유화에 불가하다.

예배를 잘 드렸다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로 잘 간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드리기 위하여 갔으니 드린 것이 옳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로 가까이 갔었다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보는 것도 옳다.

예배를 드렸느냐 보았느냐를 놓고 말장난으로 싸우지 말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 땅의 예배를 통하여 가까이 다가가다가 끝 날에 영원히 가까이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분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

예배는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말한다.

육적(생활)으로도 가까이 가야 한다.

영적(예배)으로도 가까이 가야 한다.

사랑의 여인, 롯 >>>>

(시73: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롯3:5] 롯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1. 롯의 결단

- 1) 다 행 하리이다 = 신앙고백
- 2) 노아 = 방주(方舟)(창7:5절, 다 준행 하였더라)
- 3) 모세 = 성막(聖幕)(출40:16;35, 다 준행 하였더라)
- 4) 여호수아 = 정복(征服)(수24:14-15, 다 준행 하였더라)
- 5) 예수 = 십자가(요19:30, 내가 다 이루었다)

이방여인이었던 롯, 그것도 청상 과부인 롯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간다는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모의 명령이니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롯3:6]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1. 타작마당에서의 롯

1)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 환난 중에(θέρως)

(약1:22)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롬2: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2)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노아와 방주

(창6: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 하였더라

■ 단소리

모세와 장막

(출24:03) 모세가 와서 여호와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명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 하리이다.

07)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 하리이다.

(레08:36)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 하니라.

(민02:3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기를 따라 진 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하는 분들이었다.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았다.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도 묻지 않았다.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도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랑의 여인, 룻 >>>>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가 그들의 근족이라면, 룻은 그의 아내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으며, 이들의 혼인을 이루게 하기 위해 예식도 별로 필요 없었다.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접근하도록 한 것은 룻으로 하여금 그의 아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밖에는 없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나이 든 남자일 뿐 아니라(나오미는 룻이 혼자 보아스에게 접근하는 모험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중하고 엄숙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덕 있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나오미는 룻이 정숙한 여자로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는”(딤후 2:5) 것을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때가 있었는데(민 25:1),

여기 나오는 모압 여자 룻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나오미는 올바르고 영예로운 일 이외에 다른 불미스러운 것은 아무 것도 뜻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고전13:7) 그녀의 사랑은 보아스와 룻이 올바르고 영예로운 일 이외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만일 나오미가 룻에게 충고한 것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나라의 관습에서도 음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었다면 나오미는 분명 덕 있는 여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나오미는 덕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해 볼 여지가 없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가문이 메시야가 와야 하는 역사적인 가문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본서가 설명을 하지는 않는다.

단지 본서 마지막 장에서 그 가문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을 뿐으로 우리 후대가 알 뿐이다.

그래서 말하는데 나오미는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음에는 한 점 틀림이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보아스를 홀로 남겨 두었음의 의미는

알았다고 볼 수는 있겠다.

여기서 우연과 마침을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게 된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다 예비를 해 두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판단이 빨라서 그릇 칠 때도 상당히 많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남기면서 후회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장자가 대를 잇지 못하면 그 후대가 대를 이어야하는 법이다.

이는 누구보다도 나오미가 잘 알고 있는 법이었다.

그 법대로 대를 잇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죄인처럼 생각하면서 산 나오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자부들과 헤어질 때 장면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룻1:12) 내 딸들이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13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룯을 보아스에게로 보내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했다.

룯이 보아스에게 나오미의 지시를 말했을 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보아스는 “그녀의 할 일을 고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구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행할 일에 대하여 물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할 일도 모르면서 남의 삶만 간섭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이다.

사도 바울처럼 “주여 뉘시오니이까?”(행9:6)라고 물어야 한다.

그 날 밤(이 밤의 약속)

[룯3: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룯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1. 그날 밤에

1) 먹고 마시고 : 성찬(聖餐)

성찬 때마다 마지막 성찬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일까?

2) 즐거워서

그날따라 보아스는 매우 즐거웠다고 했다.

그날은 신부가 준비된 날이었다.

또 신랑이 준비한 날이었다.

그날은 역사상 최고의 날 중의 날이었다.

신부 = 룯과 같은 신부를 보시고

3)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 룯을 위한 배려(配慮)

보아스가 왜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사환을 많이 거느린 엄청난 부자였는데 밤이 야심했기에 밭에서 잠
을 잔 것일까?

다음 날 일찍 다시 일을 하기 위하여 밭에서 밤을 보낸 것일까?

어차피 타작은 밤에 하는 것인데...?

(계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4) 가만히 가서 = 결단(決斷)

표현이 ‘가만히’이지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겠나?

■ 단소리

(엡4: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눅8:43) 이에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룻3:8]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1. 밤중에 그 사람이

1) 밤 중 = 믿음을 보겠느냐?

(눅18: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2) 신랑이로다!

(마25:6)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의 소리가 언제나 한 밤에 나게 되어 있다.

실로 중동지방의 결혼문화가 밤에 결혼예식을 거행했다.

사랑의 여인, 롯 >>>>

지금은 결혼예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당시는 밤이었다.
지금도 밤에 결혼예식을 거행하는 곳이 많다.
늘 깨어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살자!

3) 한 여인 = 참 교회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 그 한 여인?
참으로 신랑 예수께서 가장 만나보고 싶은 그 한 여인?

[룻3:9]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1. 한 밤중의 대화

1) 네가 누구냐 ?

네가 전할 소식이 무엇이냐? 시리아역(Syr)
신랑을 만났을 때 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당신의 시녀 = 종(δουλος)의 정의

눅17:2-10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이다.”

3) 옷자락 = 케나페(קנאפּ)= wing of a bird

■ 단소리

신부(新婦) 됨의 표식(標識)이다

(겔16:8) 내가 네 겹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별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 이니라

8절에 너와 나가 9번

(사61:10)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전신갑주(全身甲冑)

(엡6: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날개 : 출19:4 독수리의 날개

(출19:4)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 때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넌음을 말한다.

사랑의 여인, 롯 >>>>

마지막 종말에도 같은 표현으로 보호를 약속하신다.

(계12: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뱃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계시록 12장은 마지막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
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예비처)

[룻3:10]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풀 인애가 처음 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 한 밤중의 은혜

1) 빈부를 물론 하고

돈, 학벌, 생김새.

(잠23:25)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 연소(年少)한 자 = 롯이 매우 아름다웠음을 연상케 한다.

사람의 형편을 보지 않았다.

3) 처음보다 나중이 =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교회는 첫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으나 두아디라 교회는 날로,
날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교회였다.

(계2:19) 내가 네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 (빌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 단소리 : 베이콘

“한 인간의 성품은 고난 중에 알 수 있다.
고난은 인간을 교훈 밖으로 내 몰기 때문이다”

성경

- (롬5: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계7: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종말에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신다.
또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면류관을 만드신다.

- [룻3:11]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 밭

길가, 돌 짝, 가시, 옥토	알곡과 가라지	타작마당	천국창고
음녀교회와 신령한 교회	(같은 밭에서)	분리방법	천년왕국

2) 하갈(음녀) = 언약 없음

아브라함의 처 하갈은 아들을 낳았으나 약속은 받지를 못했다.

3) 사라(교회) = 달을 초월

경도는 끊어졌으나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4) 현숙한 여인(잠31:10-31) *γυνή δυναμης*

(잠31:10)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1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절치 아니하겠으며

12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13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4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15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 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6 밭을 간파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17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18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 19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20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21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22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23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24 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25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옷으며
26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27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28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29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5)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 분명하고, 알려지고, 보여지고, 인정되다.

6) 딸아 두려워 말라!

7)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룯3:12]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무를 자나
무를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1) 참 = 보아스

여기서 ‘참’을 말하고 있음을 듣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면 “진실로 진실로”란 말씀으로 시작하셨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자주 자주 사용하셨다.

이 때 그 진실로, 진실로란 말씀이 헬리어로는 아멘 “ἀμήν”이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진실로 아멘이신 분이시다.

(계3: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
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의인화 또는 그 많은 이름 중에 하나로 “아멘이신 이”라고
했다.

예수님 자신이 참이요 진실이기 때문이다.

여기 룯 앞에 있는 보아스의 모습이 또한 참이다.

2) 기업을 무를 자

기업 무를 자 : לַאֲשֵׁר(가알)

뜻 : 되 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가알(동사)은 기본어근이며, ‘되사다, 도로 찾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redeem, 근친 역할(권리, 의무)을 행하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어근은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하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어근과 매우 유사한 어근 파다(פָּדָה : 구속하다 redeem) 사이의 한
가지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가알(לַאֲשֵׁר)의 강조점이 근친의 특권이나 의무
인 속량에 있다는 데에 있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100회 이상 나오며, 칼형과 니팔형으로만 사용되었다.

룻 앞에 서 계시는 보아스야 말로 참으로 구속자가 되심을 알 수 있다.

2) 더 가까운 친족 = 육신의 촌수

(세상 권세 잡은 자 =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심은 분명하나 그 신랑이 오시기까지는 이 땅의 주권자가 따로 있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성경은 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의 사도들이 많이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다.

룻(종말 성도) 앞에 거짓된 기업을 무를 자가 있었다.

(마24: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23)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6)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룻3:13]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1. 보아스의 약속

1) 밤 = 위태한 때

개인의 밤?

인류의 밤?

역사의 밤?

밤과 낮이 없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밤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인가 그 밤에 신랑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그 밤을 준비했다라면 좋은 밤일 것이나 그 밤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아주 나쁜 밤일 것이다.

믿는 자 모두는 그 날에 부끄럽지 않게 신랑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밤? 이스라엘의 밤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창조에는 낮보다 밤이 먼저 등장함을 기억하자!

(창1:23)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마25:6)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마25: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2) 여기서 머무르라

시리아역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보아스는 “그의 욕정을 누르고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고 의인 요셉이
애굽의 자기 여주인 곁에 가려 하지 않은 것처럼 했다.

또 사울 왕이 경건한 사람 발디에게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주었을 때(삼상 25:44) 그녀와 자기 사이에 칼을 놓아 그녀를 범하지 않도록 한 것처럼 행하였다.”

보아스는 롯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것이 조금도 사악한 욕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 자신과 그녀의 명예 둘 다 용감히 지켰다.

3) 내가 이행하리라

보아스는 구속을 약속한다.

보아스는 결혼을 약속한다.

여호와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다른 친족 남자에게 가서 그의 생각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히브리 원어로는 과부(**אַלְמָנָה**)란 말이 병어리 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병어리를 위하여 자기의 입을 열 것이며”(잠 31:8) 자기의 뜻을 말하지 못하는 그녀를 대신해 말할 것이다.

■ 단소리 : 가만히 있으라(예비처?)

오늘의 많은 이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여기서 가만히 라는 말을 말씀대로 라고 보면 좋겠다.

반대로 가만히 있지 못함은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함이라 할 수 있겠다.

(출14: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민35:6)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도피성을 두어서 어려울 때 피신하는
방법을 훈련시켰다.

열두 지파에 6개 도피성을 두어서 어디서든지 만나절을 열심히 달리
면 갈 수 있는 곳에 두었다.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도 환난의 날에 예비처를 두셨다.

구약의 도피성은 하나님의 명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야 했지만 계시록
의 예비처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다.

(계12: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 천 이 백 육십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닳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매

3) 아침까지 = 환난의 밤이 다 지나기까지

[룻3:14] 룻이 새벽까지 그 밭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1. 보아스의 당부

1) 새벽까지 = 신랑(新郎)이 오는 시간까지

새벽까지라는 말은 반드시 밤이 지날 것임을 의미하는 아주 귀한 말이다.

삶에 그것도 종말의 성도들의 삶에 어려운 밤은 있겠지만 그 밤은 새벽을 예고하는 시점이다.

성도들에게 아침이 오고 있음이 얼마나 행복인가?

2)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세상 권세 잡은 자, 짐승, 적그리스도 등등 신랑과 신부 외에는

[룻3:15]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겹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 가니라

1. 보아스의 은혜

1) 겹 옷 = 예복(禮服), 결혼식(結婚式) 때 입는 옷

■ 단소리

(마22:12)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 이어늘

(계19: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 하였으니

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2) 보리 = 양식(糧食)

보리밭의 로맨스라는 부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는가?

보리 때문에 베들레헬을 떠난 것이었다.

보리가 주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베들레헬으로 돌아 온 것이다.

보리 이삭을 주으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난 것이다.

룯은 이삭을 주우러 갔었는데 이제는 이삭이 아니라 추수한 알곡을
보아스로부터 받게 된다.

말씀도 사모하는 자들이 더 받게 된다.

3) 여섯 번?

여기 여섯 번이 얼마인지는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량이었음은 사실이다.

6은 미완의 수(數)로 안식(安息)을 기다리는 수(數)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룯이 보리를 받는 대목이다.

보아스가 룯의 겂옷에 보리를 여섯 번 대어주고 있다.

겂옷이 얼마나 큰 옷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지금의 여인들의 옷 같지 않고 마치 결혼 예식에 임하는 신부들의

웃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여유가 있는 웃음을 알 수 있다.

[룻3:16]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1. 나오미의 물음

1)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을 향한 시모 나오미의 물음이다.

Who are Thou? = 약혼자가 되었느냐?

여러분들은 약혼자들이 되어 있는가?

약혼자가 되었다면 혼수가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가?

씩어질 것으로 준비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으로 준비했는가?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교회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오고가는 것인가?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는가?

2) 그 사람

보아스

그리스도, = 신랑

3) 행한 것 = 축복(祝福)

(계14: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룻3:17]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여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1) 빈손으로

인정받지 못할 자로(수고, 헌금(獻金), 예물(禮物))

오늘의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복은 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빈손인 자들이 많다.

하나님께 받아갈 것이 많은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때를 알고 사는 종을 찾으신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이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농사와 관련이 있다.

예수님께서서 최초로 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이다.

예수님께서서 최후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추수하는 이야기이다.

(마24:45)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46)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룻3:18]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1. 시모의 당부

1) 가만히 앉아 있으라

시리아역은 “하늘에서 어떻게 선포되는가를 기다리자”라고 해석했다.
결혼은 하늘이 주는 것이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앞으로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일뿐이다.

2)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 Rest

룻 편에서보다 신랑이 될 보아스 편에서 더 열심히 일을 보자!

3) 유월절 : 파스카($\pi\alpha\sigma\chi\alpha$) = ~~루~~ 요5:1 유월절

유월절은 이방인으로 구원된 성도들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절기이다.
구원은 다 신랑 예수께서 마련하고 또 친히 이루신 것이다.

■ 단소리

(요5:3)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5) 거기 삼십 팔 년 된 병자가 있더라”

1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인간에 쉼(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인간에 쉼(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쉼을 포기하신 하나님!

왜 **타작마당**이 중요한가를 다시 살펴보자!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를 소개하시는 분이 있었다.

예수께서 복음 사역이 시작이었는데도 그를 소개할 때 그의 전체적인 면을 함께 소개했던 분이 있다.

그렇다. 세례 요한이었다.

그럼 그가 예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했을까?

세례요한이 예수를 누구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에게 소개를 했는가?

(눅3:17)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쭈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를 소개할 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으로 소개를 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타작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럼 예수의 **자기의 타작마당**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그 **자기의 타작마당**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자기의 타작마당 = 이 세상

자기의 타작마당 = 타락 때 이미 심판이 작정이 되었다.

자기의 타작마당 =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자기의 타작마당에 오신 것이다.

종말의 성도는 추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종말의 성도는 **타작마당**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타작마당에서 알곡인지 쭈정이인지가 가려지지 때문이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최초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기억이 나시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부언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모리아 산에 세워졌다.

그런데 그 모리아산의 성전터는 원래 아라우나의 소유였다.

그럼 아라우나는 거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가?

아라우나는 그곳을 타작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처음부터 타작마당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성전을 여러 이유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적당한 이유는 성전은 분명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보다는 죄인들을 위하여 허락한 집이다.
그렇다면 죄인들은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유대인들의 절기는 다 농사와 관계가 있는 절기들이다.
그렇다면 성전도 농사와 관계가 있는 곳을 표명하고 세워졌다.
그렇다면 죄인들은 왜 무엇 하러 거기서 가야하나?
죄인이 성전으로 가는 것은 타작되려 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죄인이 예배를 통하여 즉 던져지는 말씀을 통하여 타작이 잘 되었다
면 그 예배는 잘 드러진 예배 일 것이다.
이를 이해를 하신다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였
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타작마당)에 오셨을 때 자신이 알곡인지 컙정이인지
를 구분하지 못했던 자들이 많았었다.
당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었다.
그것도 메시야를 입에 달고 살았던 자들이었다.

하나 물음표를 달아 두자!?

알곡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일까?

그럼 쭉정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일까?

성경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더러더러 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사랑하는 자의 안식을 위하여 하늘의 안식을 포기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쉼을 위하여 당신의 쉼을 포기하셔야 했던 시랑 예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타작이 되셨다.

자신이 타작이 되심으로 타작마당이 정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의 절기를 보라!

7 절기가 다 타작과 관계가 있는 절기들이다.

최종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로 타작과 다 관계가 있는 절기들이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지막 수장절 앞의 절기가 속죄절 절기라는 사실이다.

속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속죄의 목적이 알곡이 되는 것이다.

쭉정이와 티와 검불을 다 벗어 버리고 충실한 알곡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곡간에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3: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였으니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 참소리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그랬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이 뭔가를 했다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된다.

사람들이 뭔가를 하지 않음은 곧 나태요 게으름이다.

사람들이 뭔가를 계획하지만 자기일의 뒷일이 되기 십상이다.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 할 때도 뒤 돌아 보면 다 후회 막심할 때가 대부분이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일을 저지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사람들이 마음에 뭔가를 작정하고 기도해 보면 점점 내용이 빈약해 짐도 사실이다.

(출14: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삼상12:16)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시46:10)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신랑과 신부

제 4 장



Romance in barley field



제4장 신랑과 신부

[룻4:1]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1. 기업의 성경적 배경

(레25:25)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27)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47)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빈한하게 됨으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2. 기업 무를 자

1) 성문(城門) = 장로들의 자리

성루에는 늘 장로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성읍의 잡다한 문제들을 판결하는 일을 장로들이 했다.
구약의 전통적 장로들은 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이었다.
장로라는 그 말 속에 명예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말이다.

2) 오늘의 문제를 위해 등장하는 인물들

롯기서가 단순한 고부간의 사건이라면 기업 무를 자 앞에 다른 배역을 등장시킬 필요가 없다.

또 토지 문제도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었다.

여기 기업을 무르는 문제로 중간에 여인이 있기 때문이다.

3) 아무여 = אִמְרֵי אֱלֹהִים

성문에서 사용된 말 중에 ‘아무여’라는 말을 이해해야 한다.

‘아무여’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K.J.V. “**Ho such a Man!**”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타작마당이 시작된 때에 “아무여”가 누굴까?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무를 자가 누굴까?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무를 수 있는 자라면 베들레헴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람일 것이다.

보아스보다 먼저라는 말은, 보아스 보다 족보상 그 서열이 앞 선자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그를 향하여 “아무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매튜헨리)

성경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많은 이유를 달았다.

“아무여” 이는 친족을 부르는 칭호가 아니다.

“아무여” 이는윗사람을 부르는 칭호가 아니다.

“아무여” 이는 존칭으로 사용하는 칭호가 아니다.

“아무여”는 존칭이 아니라 아래 사람을 칭할 때의 칭호이다.

보아스와 엘리멜렉은 친족 간이다.

본문이나 상황을 보면 아무여 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자도 모압에서 죽은 엘리멜렉과 친척이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으로 볼 때 아무여라고 불리어지는 자가 보아스보다는 좀 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다.

그래서 법대로라면 아무여라고 불리어지는 자가 기업을 무를 자의 자격의 일 순위가 되는 것이다.

또 베들레헴 이라는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 중에 작은 마을이다.

그렇다면 당시 베들레헴에 살던 분들은 그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자들끼리는 다 잘 아는 사이였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구절은 아무여라고 불리어지는 자의 이름이 없이, 그냥 아무여 하고 불리어진다는 사실이다.

어째서 그의 이름이 정식으로 호칭되지 않았을까?

기업을 물어야하는 중대한 사건을 앞에 두었는데 이름도 없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이름도 없는 사람하고 무슨 기업을 론 한단 말인가?

보아스보다는 더 잘 알려졌을 텐데 이름이 불리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이 사람의 이름이 없었을까?

원문 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일까?

원문 상에도 이름이 없는 것일까?

룻기의 원문을 소개한다.

(룻4:1) ובעז עֲלָה הַשֹּׁעַר וַיֵּשֶׁב שָׁם וְהָיָה הַנָּאֵל עִבְרָאִי דְבָר-בְּעִז

וַיֹּאמֶר סוּרָה שָׁכְחָהּ פֶּלְגִי אֶלְמִנִי וַיֵּסֶר וַיֵּשֶׁב:

아무여 = אֶלְמִנִי (펠로니 알모니)

Κευφιε = אֶלְמִנִי는 분별해 내다 지적하다 פֶּלְגִי와 감추다,

숨기다의 אֶלְמִנִי의 합성어로 “그 이름은 감추어지다”이다.

캠벨(주석가)

1)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의 이름을 물랐을 가능성.

2) 롯기의 저자가 그의 이름을 몰랐을 가능성.

3) 기업 무를 자의 자손의 명예를 존중해서.

4)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주석가 캄벨만큼 무책임한 사람도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무책임한 말들을 늘어놓을 수가 없기에 하는 말이다.

아무여 = אִמְרֵי אֱלֹהִים

אִמְרֵי = 어떤 것, 어떠한 것

אֱלֹהִים = 어떤, some one

아람어 탈굼 역

“숨어사는 자여”라고 했다.

원문 그대로(אִמְרֵי אֱלֹהִים)숨겨진 자,

숨겨지거나, 감추어진 자로 보는것이 옳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말에는 감추어진 자가 누구일까?

마지막에 신부를 미혹하기 위하여 숨어있는 자는 누구일까?

4) 기업을 무른다는 것의 의미

땅인가?

사람인가?

땅보다는 사람이다.

보아스가 기업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겠다고 했을 때 분명히

롯을 두고 한 말이었다.

롯을 두고 한 말이라면 분명 롯과의 결혼을 두고 한 말이다.

신랑과 신부가 되려는 중대한 순간에 이들 사이를 가르려는 세력이 누군가?

성경이 의도적으로 등장을 시켰다면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가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보아스가 탐을 내는 것도 땅이 아니라 롯이었다.

■ 쓴소리

룻기는 역사서이다.

룻기는 구속사적 역사서이다.

룻은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의 대명사이다.

아울러 기업을 무를 보아스는 구속자의 대명사이다.

그렇다면 룻기는 구속사적인 역사이면 또한 예언을 담고 있음이 확실하다.

1) 이스라엘의 구속을 예언했다.

2) 이방인들의 구원도 예언했다.

3) 이 예언의 역사는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아브라함이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면서도 그는 아들 이삭을 보면서
예수를 보고 있지 않았는가?(요8:56)

성경에 지나간 인물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면서도,
왜 룻기를 과거사로만 보아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역사이면서 또 교훈이면서도 또 장래의
예언이라 할 수 있다.

4) 이제 다시 오셔야하는 구속의 완성의 예언이라는 말이다.

구약성경을 통하여 오실 예수만 만나시는가?

신약성경을 통하여 오신 예수만 만나시는가?

5) 신구약성경을 통하여 오실 예수도, 또 오신 예수도 또 다시 오실
예수도 만나야 한다.

6) 룻기는 사사기 때의 사건이지만, 원래는 사사기 다음 순서에 놓여
졌던 책이 아니었다.

히브리인들의 성경 분류에는 룻기가 시가서, 잠언서, 전도서, 및 아가
서와 함께 5 두루마리의 책이었다.

그래서 구약 5경과 같이 5 두루마리의 특별한 의미의 책이었다.

[룻4:2] 보아스가 성읍 장로 십(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눅3:21)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3)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삼십 세 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막1:15)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룻4:3]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옴이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1. 보아스와 엘리멜렉?

1) 둘은 친척지간이다.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른다.

2) 둘은 형제지간이다.

엘리멜렉을 들어서 “우리 형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이름이 없다.
그냥 아무여 하고 불렀을 리가 없지 않은가?
자기 형벌인데도 어찌 아무여 할 수 있는가?

더 안타까운 일은 롯기를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3) 그 누구도 이름이 없는 일에 마음을 쓰려하지 않는다.

성경의 이름들 대부분은 예언적인 이름들이다.

이삭, 세레 요한, 예수님 등등...

그래서 잉태 될 때에 또는 잉태 전에 이름을 주실 때가 많다.

그래서 말씀 속에 이름이 등장할 때는 그 이름의 의미도 함께 상고함이 좋다.

만약의 경우 이름이 있을만한데도 이름이 없다면 이도 한 번 생각을 깊이 해 봄이 좋다.

4)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왜’라는 의문사를 붙임이 죄나, 불 경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깨닫지 못함이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룻4:4]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무르려면 무르려니와
네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무를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무르리라’

1) 여기 앉은 장로들은 그 마을의 원로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보는 기분이다.

사랑의 여인, 롯 >>>>

보아스는 거기 장로들 앞에서 역사적인 거래를 시작한다.

‘네가 무르려면 무르려니와 네가 무르지 아니하면 내게 고하여 나로 알게 하라’

2) 네게 알게 하였노라 = 내가 네 귀를 열려고 말하였노라

ΑΠΟΚΑΚΕΩ ΤΟ ΟΥΣ ΣΟΥ

너 아니면 나 : 나 아니면 없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한 거래이다.

3) 내가 무르리라!

그 엄청난 부자 보아스가 모압 여인 그것도 별 볼일 없는 과부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큰 거래를 하고 있다.

땡전 한 푼 없는 거지 그것도 이삭을 주으려 왔던 천한 여인을 얻기 위하여 상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던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얻고자 그 고귀한 생명을 투자하셨다.

혹시 사람들은 투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덜 사랑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보아스의 선언(내가 무르리라)

[룻4:5]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 잔소리

바보스러운 보아스를 본다.

보아스가 바보스럽다는 말은 보아스가 그런대로 부자였다.

그런 보아스가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을 그것도 과부인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 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들여야 했다.

모압 여인 그것도 과부인 그 여인이 보아스에게는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는 말이 된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참으로 바보 중에 바보 같은 일을 하셨다.

그렇게 하셔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함이셨다.

그것도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함이셨다.

구 찬송가 405장 새 305장 - 나같은 죄인 살리신

1.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작시자인 존 뉴턴 목사의 설교와 저술의 주제는 언제나 ‘주의 놀라우신 은혜’였다.

그의 감격을 쏟아놓은 자서전과 같은 그의 찬송 ‘주의 놀라우신 은혜 (Amazing Grace)’는 누구에게나 큰 감동을 주는 찬송이다.

이는 그의 나이 54세가 되던 1779년에 작시하여 같은 해에 윌리엄 카우퍼의 ‘올니 찬송가(Olney Hymns)’에 실었다.

사랑의 여인, 롯 >>>>

그 후 에드윈 오텔로 엑셀 목사가 펴낸 ‘대관 찬송가’에서 4절이 되어 실린 후 현재의 곡으로 구성되어 불리어지게 되었다.

이 찬송은 역대상 17장 16, 17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존 뉴턴 목사는 자신의 죄, 즉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미국 남부 농장에 팔던 일을 비롯해 노예선 선장으로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발과 손에 착고를 채워 배의 갑판에 생선을 잡아 말리듯 노예들을 죽인 죄를 회개하는 마음에서 고백했던 기도가 가사로 불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곡의 기원은 불분명하다.

일설에 의하면 19세기 초 미국 남부 농장에서 불리웠던 “사랑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민요곡이었다고 한다.

이 곡이 처음 출판된 것은 1831년으로 제임스 카렐과 데이빗 크레이턴 등이 버지니아 레바논에서 편찬한 네모꼴 악보집인 ‘버지니아 화성’에 수록되었다.

현재의 곡 형태로 완성된 것은 에드윈 오텔로 엑셀이 편곡한 ‘주의 찬양을 영광스럽게 하라’에 제235장으로 실렸던 곡으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롯4:6] 그 기업 무를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무를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1)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달면 먹고, 쓰면 내 뺏는다.

(계17:16)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2) 참 신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름도 없는 자가 롯의 신랑이 될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절대로 포기 하실 수가 없다.

[룻4:7]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1) 신을 벗어 = 자격을 포기(구약의 거래 방법)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야 한다.

(엡6: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룻4:8] 이에 그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엡6: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룻4:9]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1. 보아스의 당당한 선언

보아스는 성문의 장로들을 향하여 “너희가 오늘 날 증인이라”
당당한 선언을 했다.

(신28:2)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3)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 말론 = 약골, 병약자

2) 모압 = 세상

3) 사서 = 구속 : 피로 값 주고

승리의 선포

(요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계5:5)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 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룻4:10]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1. 사서 = 속량해서

거래의 분명함을 보여주는 말이다.

구원 얻은 자 모두가 다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다 사신바 된 자들이다.

2. 잇게 = 결혼 관계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엘 곧 우리의 구속자(무를 자)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다.

3.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 하나님의 아들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4. 신랑 예수의 분부

(요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롯을 이렇게 사랑하셨음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음이 이방을 향한 하
나님의 계획이셨다.

열 문둥이 중 그 한 사마리아 문둥이를 사랑하셨음이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이것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 주신 이유이다.

일반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역사이다.

왜냐하면 창조의 원래는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노아 때에는 함과 야벳과 셈의 형제가 있었을 뿐이다.

(창7:7) 노아가 아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13)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5. 보아스의 결혼 선포

보아스는 이 성스러운 결혼과 재산 매입을 공중에게 알림으로써 모
든 권리를 확고히 했다.

뿐만 아니라 롯에게 영예를 부여해 준 것이다.

즉 그가 롯과 그의 가문과 가난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
여 준 것이다.

또한 비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긴 셈이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향하여 가까이 오지 않으려는 것은 오직 마귀
뿐이다.

보아스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증인을 요청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요 그래야 다시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런 관심은 장로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문에 있던 모든 사람과 지나가던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도 요청되었다(9절).

그들이 그 요청을 들었을 때에는(11절)

“우리가 증인 이니라!”이라고 대답했다.

[룻4:11]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1. 성문 장로들의 기도

2. 친구들의 기도

3. 백성들의 기도

4. 기도의 등장하는 인물들

1) 라헬 = 요셉의 모친, 신령한 교회

2) 레아 = 루브嫩的 모친, 육적인 교회

3) 이스라엘의 집 = 하나님의 집

4) 베들레헴 = 떡 집

5) 유명케 = 유명하다(유명한 자) 유명케 : ~~이름~~(셈) 이름 name

예수 만나기 전의 이름은 이름이 아니다.

[룻4:12] 여호와께서

이 소녀 롯으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 기도의 내용들

1) 다말 = 종려나무, 승리(십자가의 상징 : 신령한 교회의 표상)

2) 베레아 = 장자 권 계승자

3) 이 소녀 롯으로!

4) 네게 후사로 주사

[룻4:13] 이에 보아스가 롯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4:14]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아니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4:15] 이는 네 생명의 회복 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룻4:16]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룻4:17]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지금 까지 룻기를 죽 살펴보았다.

분명히 보아스와 결혼을 한 여인은 이방여인이었던 룻이다.

그런데 그 룻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은 자가
룻이 아니라 나오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룻기는 문자적으로만의 해석이 어려운 책이다.

그 후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속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다.

■ 참소리

오벳 : **אֲבֵד**(오베드) 오벳 Obed(인)

오베드(명남)는 아바드(**אָבָד**)에서 유래했으며,

'섬기는 자(예배자)'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참 섬김의 사람을 만들고 계셨을
을 본다.

오벳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났다.(룻4:17, 21-22, 대상2:12),

하나님은 유대와 이방인간에 간격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래

적 계시의 사건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말씀을 보면서도 알지를 못했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

아브람을 불러서 때가 되매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비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주신다.

열국의 아비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런데 그 후손들이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부르면서도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다.

심지어 같은 민족이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했다.

쉽게 말해서 상종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동리로 통행하지도 않았다.

1. 예수와 사마리아 사람

1) 사마리아 여인

(요4:9)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 함이러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가장 먼저 일러 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2) 열 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로 사마리아 사람

(눅17: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 13)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 14)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 15)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 16)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3) 선한 이웃인 사마리아 사람

- (눅10:25)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 27)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 29)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 33)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 35)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 36)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 37)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은 유대인을 불한당 만난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왜 유대인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하셨을까?

왜 유대인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레위인이라 하셨을까?

왜 사도 바울은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했을까?

왜 사도 바울은 동족을 뒤로하고 이방인 로마를 택했을까?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을까?

사도 바울은 동족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행11:13)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유대인으로 국한 하시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 하셨다.

이제 멸시받던 열방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저 유대인들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유
대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온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속속 고토로 돌아오고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외워보자!

(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 외우셨다.

헌데 아직도 그 구절을 그렇게 외우셔야 하나?

지금 예루살렘에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복음이 옛날에 이방으로 증거 되어 왔고 지금은 없다.

이제는 열방이었던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였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외워야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 끝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예루살렘으로 증인이 되자!”

이제 열방이었던 모압 여인이 유대인 나오미와 함께 떡 집 베들레헬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보았다.

아직도 너무 억지 같이 들리시는가?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그 때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 할 때면 대충 4, 5천명이 몰려들었다.

아니 만여명이 넘게 몰려 왔었다.

그렇다면 그 때 귀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그럼 왜 이 비유에서 핵심을 비켜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구약성경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이다.

(사6: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 하리라 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인용임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고별설교를 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다.

(행28:26)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 하는 도다.

27)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로마서가 사도행전의 뒤를 잇는다.

(롬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구원역사가 이방인으로부터 되어야함을 로마서 11장이 강조하고 있다.

(롬11: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선민을 오래
전에 열방에 흠으셔야 하셨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세계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복음이 어떻게 되었을 때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가?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마10:23)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막13:27) 또 그 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그 흠으셨던 땅 끝에서 고토로 돌아오고 있다.
그 흠으셨던 백성들을 고토로 모으고 계심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가고 있음의 증거라 할 수 있다.
고토로 돌아 온 유대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얼마나 유대 전통 랍비인 Kaduri라는 분이 108세에 운명하시기 전에
보았던 계시를 Israel Today 지에 실렸던 내용이다.

“2,000 여년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것이었다.

루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마1:5, 눅3:32).

[룻4:18]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1) 베레스 = 터짐, 파괴 = פֶּרֶץ

베레스 : פֶּרֶץ(페레츠) 베레스 Perez

페레츠는 파라츠(פָּרָץ)에서 유래했으며, ‘터짐, 헤치고 나옴’을 의미한다.

베레스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쌍둥이 아들 중의 형.

(창 38:24, 창 38:25, 창 38:29, 창 38:24-30.)

그는 베레스 가문의 시조로(민 26:20, 민 26:21),

유다 자손의 계보에 기록되었다(창 46:12).

그는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다(룯 4:12, 마 1:3, 눅 3:33).

룯기의 저자가 왜 다윗의 족보를 말하고 있을까?

그것도 족보를 말하려면 더 멀리 마태처럼 아니 누가처럼 열거하지
않고 베레스부터였을까?

그 이름이 재미있지 않은가?

무엇이 터졌고?

무엇이 헤치고 나왔는가?

2) 헤스론 = 달힘, 시간 후 = הֶזְרוֹן

헤스론 : הֶזְרוֹן(헤츠로니) 헤스론 자손 Hezronites

헤츠로니는 헤츠론(הֶצְרוֹן)에서 유래했으며, ‘헤스론의 후손들’을 의미
한다.

유다 자손 헤스론에게서 나온 후손.(민 26:21).

[룯4: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람 = רָם(람) 람 Ram

람은 ‘높은, 고양된’을 의미한다.

구약성경에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야곱의 후손 유다 지파 헤스론의 아들이며, 다윗(룻4:19-22, 대상 2:9-10)과 예수의 조상(마 1:3-4)이다.

눅 3:33에서는 ‘아니’라고도 부른다.

암미나답 = אַמִּינָדָב(암미나다브) = 내 혈족은 고귀하다

암미나답 Amminadab

암미나다브(명남)는 암(אֵם)과 나디브(נָדִיב)에서 유래했으며,
‘나의 친척은 고귀하다’를 의미한다.

유다 지파의 랍의 아들.

(대상2:10, 룻4:20, 출6:23, 민1:7, 룻4:19, 마1:4, 눅3:33)

[룻4: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나손 = נַחֲשֹׁן = 뱀"(나흐손) 나손 Nahshon

나흐손은 뱀과 관련이 있으며,

‘점쟁이’를 의미하는 듯하다.

그는 암미나답의 아들로, 광야 시대의 유다 지파의 족장이다
(민1:7, 민 2:3, 민 10:14).

그는 아론의 처남이며(출 6:23),

다윗(룻 4:20-22)과 그리스도(마 1:4, 눅 3:32)의 선조이다.

살몬 = שַׁלְמוֹן = 그늘, 어두움 : שַׁלְמוֹן(살몬) 살몬 Salmon

살몬(명남)은 살마(שַׁלְמָה)와 살마(שַׁלְמָה)와 동일하며,

보아스의 아버지이며,

룻의 시아버지이다(룻4:21).

신약성경에서 살몬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다(마1:4-5, 눅3:32)

(마1:4) 랍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룗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수2:1)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 하더니

2) 흑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 왔나이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살몬은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살몬처럼 쓰여 지면 구원 역사에 아주 귀하게 쓰여 짐을 보게 한다.

[룻4:21]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벧을 낳았고

보아스 = ~~보아즈~~(보아즈) = 강함, 재빠름, 보아스 Boaz.

보아즈(명남)는 ‘민첩, 재빠름’을 의미한다.

한글 개역 성경은 ‘보아스’로 음역한다.

(a) 보아스는 유력한 베들레헴 사람이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룻 2:1).

(b)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친족이며, 룗의 두 번째 남편이다 (룻4:10-4:13).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한 부유한 농부였다.

그는 성경에서 모압 여인이며 전에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내였던 룗에 대한 대우 때문에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나오미는 극심한 기근 때(사사 시대 동안)에 그녀의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갔었다.

모압에 있는 동안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였으나 이 후 두 아들과 남편이 모두 죽었다.

나오미는 그녀의 며느리들에게 그들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도록 권고하였으나 롯은 거절하였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롯은 그녀와 동행하였다.

그 두 사람은 가을 추수 때에 도착하였으므로 롯은 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라 이삭을 주으러 나갔다.

그녀의 행운은 그녀가 추수 기간 동안 머물도록 지시받은 보아스의 밭에서 시작되었다.

나오미는 그녀의 며느리에게 죽은 남자의 이름과 기업을 지키기 위해 고엘(goel) 또는 기업 무를 자에 대해 규정한 ‘수혼법(아들이 없는 미망인이 남편의 형제나 친족과 결혼하는 법)’에 관한 관습을 가르쳤다.

그 의례는 여인이 고엘의 발치에 누움으로 시작된다.

그 호소는 순위가 두 번째로 밝혀진 보아스에게 행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러한 문제들이 결정되는 성문에서 그 문제가 처리되도록 조치하였다.

그 연장자는 모압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 “그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거절하였다.

하나님의 역사는 억지로 되지 않고 순리로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사고 롯과 결혼하였다.

보아스는 경건과 자비의 모범으로,

롯은 미덕과 헌신의 모범으로 종말성도의 신부로 제시된다.

10세대 동안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나오미를 따름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와 관습을 받아들였다.

보아스는 사실상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으므로 나오미와 결혼할 책임이 있었지만, 말론에게까지도 책임이 확대됨을 알고도 그의 과부와 결

혼하였다.

이 이야기의 행복한 결과는 이들 부부가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모압에서 준비된 피난처를 찾았던 다윗의 증조부모가 되었다는 것이다.(참조: J. J. Edwards).

(c) 보아스는 삼마의 아들이며, 이새의 할아버지이며, 다윗의 증조부이다(대상 2:11, 12; 룯 4:17 룯 4:21).

보아스는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타난다.

- ① 마1: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 ② 눅3:32, “그 이상은 이새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오벳 = עֹבֵד(오베드) = 경배자, 종, 오벳 Obed(인)

오베드(명남)는 아바드(עֲבָד)에서 유래했으며, ‘섬기는 자(예배자)’를 의미한다.

다윗의 조부이며 보아스의 아들.

보아스와 룯 사이에서 태어났으며(룯4:17, 4:21-22, 대상 2:12),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마1:5, 눅3:32).

[룯4:22]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 = עֹבֵד = 경배자, 종

다윗 = דָּוִד = 사랑 : 다윗 David

다위드(명남)는 한글개역에서 다윗으로 음역하며, 그 의미는 마리(Mari)에서 발굴된 서판이 시사하는 것처럼 ‘사랑받는 자’, 또는 ‘두목’이라는 뜻이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아들이며, 유다 지파에 속한 자로, 사울왕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다.

제 4 장 신랑과 신부

성경에서 다윗이란 이름은 그에게만 사용되었으며,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다윗의 후손의 조상, 선구자, 예시자로서 갖은 독특한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칭호 ‘다윗의 자손’을 포함하여 다윗에 대한 언급이 신약성경에서 58회 등장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한 다(롬 1:3).

한편 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친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다(계22:16).

(계5:5)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의 족보와 하나님의 목적들에서 그렇게 탁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자 구약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 자료가 방대하고 풍부하다.

다윗에 대한 성경상의 자료는 삼상 16장-왕상 2장;
대상 2장 이하; 대상 10장 -대상 29장;
룻 4:18-22 그리고 많은 시편들을 들 수 있다.

다음 다윗의 생애를 요약한다.

(a) 다윗은

- ① 베들레헴 유대인: 삼상16:1-16:3 룻4:18-4:22
- ② 양치기: 삼상 23:13-23:17
- ③ 음악가: 삼상 16:14-16:23
- ④ 시인: 삼하 1:17-1:27
- ⑤ 용사: 삼상 17장
- ⑥ 친구(요나단의): 삼상 18:1-18:4, 삼상 19:1-19:7
- ⑦ 적(사울의): 삼상 18:5-18:22

사랑의 여인, 롯 >>>>

⑧ 사울의 딸 미갈에 의해 구원받은 자:삼상18:22-18:29, 19:8-19:17

(b) 도망자이며 추방 자였던 다윗

① 라마의 나옏: 삼상 19:18-20:42

② 눅: 삼상 21:1-21:9, 삼상 22:11-22:21

③ 가드: 삼상 21:10-21:15, 27:1

④ 아들람 굴: 삼상 22:1 이하

⑤ 미스베: 삼상 22:3 이하

⑥ 헤렛 수풀: 삼상 22:5

⑦ 그일라: 삼상 23:1-23:13

⑧ 십 황무지: 삼상 23:14-23:24, 26:1 이하

⑨ 아라바의 마온: 삼상 23:24-23:28

⑩ 엔게디: 삼상 23:29-24:22, 26:4 이하

⑪ 가드(아기스): 삼상 27:1-27:5

⑫ 시글락: 삼상 28:2, 28:30. 참조, 대상 12:1-12:22

(c)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삼상31장; 삼하1장. 참조, 대상 10장

(d) 유다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 다윗

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 삼하2:1-1:11

② 아브넬의 반란과 이스보셋의 죽음: 삼하 2:12-4:12

③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다윗: 삼하 5:1-5:5 참조,
대상 11:1-11:3, 12:23-12:40

④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정치적인 수도로 정함: 삼하 5:6-5:10 참조
대상 11:4-11:9

⑤ 두로 왕 히람과의 동맹: 삼하 5:11 참조, 대상 11:14

⑥ 예루살렘을 종교적인 수도로 만들:

(a) 하나님의 궤를 옮겨옴으로: 삼하6:1-6: 19: 대상13:1-14, 15:1-15:42

(b) 성전을 위한 기도와 준비로: 삼하7장: 대상21:18-22:5

(e) 다윗 왕대의 인물들과 사건들

① 그의 가족: 삼하3:2-3:5, 5:13-5:16 참조: 대상 3:109, 14:3-14:7

② 밋세바 사건: 삼하 11:2-12:25

③ 궁정 관리들: 삼하 8:15-8:18, 20: 23-20:26 참조:
대상 18:14-18:17, 27:25-27:34

④ 사울의 자손들에 대한 대우: 삼하 4:4, 9:1-9:13

⑤ 유명한 용사들: 삼하 23:8-23:12, 23:18-23:39 참조:
대상 11:1-11:14, 11:20-11:47, 27:1-27:24

(f) 정복 전쟁

① 블레셋: 삼하5:17-5:25, 21:15-21:22, 23:13-23:17 참조:
대상11:15-11:19, 14:8-14:17, 18:1, 20:4-20:8

② 모압: 삼하8:2 참조: 대상18:2

③ 소바: 삼하8:3 이하; 참조: 대상18:3, 18:4

④ 시리아: 삼하8:5-8:13 참조: 대상18:5-18:10

⑤ 에돔: 삼하8:14 참조: 대상18:11-18:14

⑥ 암몬: 삼하10:6-11:1, 삼하12:26-12:31 참조: 대상19:1-20:3

(g)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 삼하 24장; 참조: 대하 21장 이하

(h) 반란

① 그의 아들 압살롬: 삼하 13장-삼하 19장

② 세바: 삼하20:1-20:22

③ 아도니아: 왕상 1장

(i)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권고: 왕상2:1-2:11 참조:
대상23:1, 29:20-29:25

(j)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영향력은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기인한다.

그의 성격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혼합되어 있는데 전자가 우위를 차지한다.

그 시대에 널리 행해졌던 일부다처제가 그의 가족들의 어려움의 대부분의 원인이었다.

다윗의 여호와와는 전쟁의 하나님이라 했다.

다윗은 여호와와는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자라 했다.

다윗은 감사를 받으시는 섭리의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충성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느꼈다.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고 고발할 때 다윗의 유일한 대답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였다.(삼하12:13)

다윗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삼상13: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사무엘서를 다시 인용했다.

(행13:22)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유대 ‘교회’를 세우고 예배의 의식을 시작하였다.

다윗은 특히 의식에 음악적인 형식을 시작한 자이다.

다윗은 장막 성전에서 고정된 성전을 지으려했다.

다윗의 이 상황에서 역대상하서는 그가 죽은 후 300년 동안 쓰여진 교회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그의 위대한 영향력을 기록한 것이다.

그의 백성의 구원자, 왕조의 창설자, 국가를 통일한 자로서 다윗은 그의 애국심을 증명하였다.

그는 기력이 풍부한 행정가이자 현명한 통치자였다(삼하8:15). 그는

예루살렘을 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였다.

그 후의 시대에 압제와 부정이 히브리 백성들 중에서 일반적인 것이 되었을 때, 위대한 선지자들은 다시 의로운 왕이 왕좌에 앉을 때를 기다렸고(렘23:5) 이 이상적인 통치자의 상징으로 다윗의 이름을 사용하였다(렘30:9 겔34:23 이하; 눅1:32,2:11).

현재의 자바(Jaffa)의 성문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소위 다윗의 탑은 헤롯 대왕이 그의 형제를 기념하여 세운 Phasaël 탑이다.

예수님께서도 틀림없이 현존하는 그 건축물의 석조 건축 과정을 보셨을 것이다(Walter Bauer; J.H.Thayer).

결 론

1. 종말 성도의 복?

(계19: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2. 천국의 아름다움?

(계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의 아름다움은 신부의 신앙생활과 연관되어 있다.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아름답게 느껴지는 곳이 천국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온자가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냉동되었다가 다시 깨어난 자가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사모했느냐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천국은 제가 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출판: 장로신문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천국을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 잘못되었다.

천국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금이 없고, 보석이 없고, 생명나무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지금 사람이 가진 말로는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천국은 신랑 예수가 있는 곳이다.

천국은 아버지가 있는 것이다.

천국은 성령님이 있는 곳이다.

(계21:22)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천국이 되시는 예수께서 약속을 따라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이다.

교회인 나오미의 신앙이 필요하다!

신부인 롯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 참소리

(눅14:15)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받을 샀으매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초대가 된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민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메시아이신 신랑이 왔었을 때 신랑을 영접하러 나가
는 이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어떤 이는 소 다섯 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했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은 받을 샀기 때문에 불가불 못가겠다고 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청함에 응하지 못했던 전체적인 이유요 또
문 밖에 내어 쫓김을 받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또 롯기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에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할 때처럼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하여 제 2의
오순절이 오고 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초대교회 때 15개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 왔었다.
저들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찾아 왔던 것이다.
지금은 15개 나라가 아니라 108개 나라에서 고토로 돌아 왔다.
이제 그 때처럼 방언이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 때 같은 방언이
없더라도 세계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통일된 시대이다.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음(口音)을 하나 되지 못하게 흠으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 흠었던 언어를 하나로 통일해 놓았다.

사랑의 여인, 롯 >>>>

제 2의 오순절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질 때가 가까웠음을 생각하자!

요엘 2장 28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
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30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시간표이다.

때에 관심 없던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것도 잠긴 문 밖에서...

끝까지 읽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그럽게 사랑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함께 기쁨의 찬양을 합시다! 아멘!

롯과 같은 교회

롯과 같은 성도

〈롯과 같은 신부가 되자〉

	롯 1 장	롯 2 장	롯 3 장	롯 4 장
떠 남	1:1-2 풍족하게 떠남(1:21) 유다 → 모압	2:1-3 빈손으로 나감 집 → 밭	3:1-6 빈손으로 나감 집 → 타작마당	4: 청함을 받음 집 → 집
정 착	1:2-6 빈손 모압	2:3-17 이삭 밭	3:6-15 유력한자와 언약	4: 기업무를 자와 함께
귀 향	보리 추수 때	우연→마침	날개 밑	영원 안식

사랑의 여인, 룯

초판1쇄 발행 | 2013년 2월 15일

2판1쇄 발행 | 2013년 4월 15일

저 자 | 한원식 목사

발행·인쇄처 | 세일포커스(주)

등록번호 | 제301-2007-053호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95-4

전 화 | 02)2275-6894~6

팩 스 | 02)2263-5593

I S B N | 978-89-960455-4-0

공 급 처 | 일오삼출판사

전화: 02)964-6993

팩스: 02)2208-0153

값 9,000원

